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신북방

Russia 러시아

Kazakhstan 카자흐스탄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Mongolia 몽골



Contents

01 러시아

RUSSIA • 5

02 카자흐스탄

KAZAKHSTAN • 41

03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 75

04 몽골

MONGOLIA • 105

러시아 . . .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7
1. 농업 현황	
2. 수출입 현황	
II. 농식품 시장 현황	17
1. 시장 개요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 환경 변화	
3. 농식품 관련 정책동향	
III. 농식품 유통 현황	25
1. 유통 현황 및 특징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31
1. 수출 프로세스	
2. 수입제도	
3.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및 현황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러시아

1 농업 현황

가. 농업규모

■ 넓은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업 규모는 소폭의 감소세를 보임

- 대부분의 농업이 흑해 연안과 흑토지대에서 이뤄지며 관개농업이 발달함
 - 흑토지대에서 집중적으로 밀을 재배하며 흑해 연안의 지중해성 기후 지대에서 과실 재배와 관개농업이 이뤄짐
- 2019년 농촌인구는 3,732만 7,187명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0.4% 감소세
 - 2018년 농업 관련 일자리 수¹⁾ 전년 대비 3.8% 증가한 2,286만 9,384개로 집계되며 전체의 23.7% 차지하나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2.5% 감소

러시아 농촌 인구 수(2015~2019)

(단위 :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농촌인구	37,985,068	37,887,277	37,772,009	37,553,533	37,327,187	△0.6	△0.4
인구 대비 비율	26.0	25.9	25.7	25.6	25.4	△0.5	△0.5

* 출처 : 러시아 통계청(Rossstat)

러시아 농업 관련 일자리 수(2014~2018)

(단위 : 개,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년비 ('17/'18)	연평균 ('14/'18)
전체 일자리 수	92,597,436	92,763,220	95,642,284	95,540,426	96,443,928	0.9	1.0
농업 ¹⁾ 일자리 수 (비중)	25,331,207 (27.3)	25,410,430 (27.4)	22,619,176 (23.6)	22,040,566 (23.1)	22,869,384 (23.7)	3.8	△2.5

* 주1 : 농축업과 수렵, 임업을 더한 수치

* 출처 : 러시아 통계청(Rossstat)

1) 러시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최신 통계자료임(2020년 9월 기준)

- 2019년 농경지 면적²⁾은 7,988만ha로 지난 5년간 연평균 0.4% 증가하며 보합세
 - 곡물 및 두류 재배면적 4,666만ha로 가장 넓고, 이 중에서도 밀 재배면적 2,809만ha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공예작물 가운데 사탕무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바라기가 유지류 중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음
 - 감자 및 채소류의 재배면적이 가장 좁으며, 연평균 4.7% 감소하고 있음

러시아 농지 면적(2015~2019)

(단위 : 천 ha,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농경지	78,634.8	79,311.9	80,048.7	79,633.7	79,880.2	0.3	0.4	
곡물 및 두류	합계	46,608.7	47,099.8	47,705.4	46,339.4	46,660.4	0.7	0.0
	밀	26,826.7	27,708.8	27,923.6	27,264.1	28,091.7	3.0	1.2
	보리	8,865.7	8,321.6	8,010.3	8,325.1	8,793.0	5.6	△0.2
	옥수수	2,761.5	2,887.4	3,019.1	2,452.0	2,592.7	5.7	△1.6
	귀리	3,047.4	2,860.4	2,887.3	2,853.3	2,545.4	△10.8	△4.4
	호밀	1,292.1	1,264.7	1,185.1	980.1	849.9	△13.3	△9.9
	메밀	957.0	1,205.0	1,692.0	1,044.7	811.4	△22.3	△4.0
	쌀	202.1	207.6	186.7	181.5	194.1	6.9	△1.0
	두류	1,586.8	1,752.2	2,220.9	2,753.8	2,164.1	△21.4	8.1
공예작물	합계	12,722.1	13,618.3	13,959.2	15,174.2	15,896.3	4.8	5.7
	사탕무	1,020.7	1,106.8	1,198.1	1,126.7	1,144.9	1.6	2.9
지방종자	합계	11,516.8	12,320.3	12,630.5	13,941.1	14,615.2	4.8	6.1
	해바라기	7,013.0	7,606.8	7,994.0	8,160.1	8,583.6	5.2	5.2
	유채씨	1,021.6	979.6	1,005.4	1,576.3	1,547.5	△1.8	10.9
감자 및 채소류	합계	2,311.1	2,168.8	2,041.9	1,996.4	1,906.4	△4.5	△4.7
	감자	1,561.7	1,441.3	1,349.5	1,324.6	1,254.7	△5.3	△5.3
	채소와 박류	563.1	551.1	534.6	525.9	517.5	△1.6	△2.1

* 출처 : 러시아 통계청(Rossstat)

- 2019년 가축 사육규모 총 6,590만 7,000두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 유지, 이 중 돼지 2,516만 3,000두로 전체의 38.2% 차지

2) 과일 등 기타 작물에 대한 면적은 제공되지 않음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 돼지 사육 규모는 전년 대비 6.1% 증가, 2015년 이후 5년간 연평균 4.1% 증가하며 유일한 증가세
- 양 사육 규모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2,065만 5,000두로 전체의 31.3%, 소 사육 규모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0.1% 감소)인 1,812만 6,000두로 전체의 27.5% 차지

러시아 가축 사육 규모(2015~2019)

(단위 : 천 마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합계	518,747	64,988	65,759	65,007	65,907	1.4	△0.4
- 돼지	21,406	21,925	23,076	23,727	25,163	6.1	4.1
- 양	22,443	22,662	22,347	21,136	20,655	△2.3	△2.1
- 소	18,621	18,346	18,294	18,151	18,126	△0.1	△0.7
- 염소	2,163	2,055	2,042	1,993	1,963	△1.5	△2.4
- 닭	454,114	-	-	-	-	-	-

* 출처 : 러시아 통계청(Rossstat)

나. 주요 생산 품목 및 규모

■ 2019년 농축산물 생산규모 5조 8,014억 1,000만 루블(한화 약 84조 9,326억 원)로 전년 대비 8.5% 증가

- 이 중 농산물 생산액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조 564억 2,800만 루블(한화 약 44조 7,461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3%의 성장세

러시아 농축산물 생산액(2015~2019)

(단위 : 백만 루블,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4,794,615	5,112,356	5,109,475	5,348,803	5,801,410	8.5	4.9
농산물	2,487,287	2,710,337	2,599,666	2,756,063	3,056,428	10.9	5.3
축산물	2,307,328	2,402,019	2,509,809	2,592,740	2,744,983	5.9	4.4

* 주 : 매매가 기준(in actual price)

* 출처 : 러시아 통계청(Rossstat)

- 곡물, 사탕무 및 유지류 등 활발히 생산되며 대부분 품목의 생산량 증가
 - 곡물류 생산량 12억 1,199만 쉐트너(1억 2,120만 톤) 중 밀 생산량이 7억 4,452만 쉐트너로 61.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사탕무 5억 4,350만 쉐트너(5,435만 톤), 유지류 2억 4,322만 쉐트너(2,432만 톤)로 연평균 8.7%, 13.2%의 증가

러시아 곡물, 두류, 유지류 생산규모(2015~2019)

(단위 : 천 쉐트너(=100kg),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곡물 및 두류	합계	1,047,286.7	1,206,769.5	1,355,387.0	1,132,550.0	1,211,999.3	7.0	3.7
	밀	618,114.9	733,456.8	860,025.4	721,361.5	744,526.9	3.2	4.8
	보리	174,989.8	179,671.6	206,289.5	169,919.1	204,890.9	20.6	4.0
	옥수수	131,376.8	152,815.9	132,081.0	114,190.2	142,823.5	25.1	2.1
	귀리	45,379.0	47,658.9	54,562.4	47,193.2	44,244.3	△6.2	△0.6
	호밀	20,878.4	25,478.8	25,487.2	19,160.6	14,284.2	△25.5	△9.1
	쌀	11,097.6	10,808.9	9,866.2	10,382.2	10,986.6	5.8	△0.3
	메밀	8,613.3	11,872.7	15,248.8	9,317.1	7,857.0	△15.7	△2.3
두류	23,539.6	29,398.6	42,620.3	34,356.3	33,442.3	△2.7	9.2	
사탕무	389,888.1	513,249.5	519,134.4	420,659.6	543,501.2	29.2	8.7	
유지류	합계	147,955.5	174,719.5	177,809.6	209,372.6	243,220.8	16.2	13.2
	해바라기씨	98,479.1	117,957.4	112,482.2	135,527.1	163,084.1	20.3	13.4
	유채씨	11,258.0	11,215.8	16,888.6	22,163.2	23,076.8	4.1	19.7

* 출처 : 러시아 통계청(Rossstat)

- 과일 및 베리류 생산량 3,500만 쉐트너(350만 톤), 감자 2억 2,073만 쉐트너(2,207만 톤), 채소류 1억 4,104만 쉐트너(1,410만 톤) 등 생산
 - 과일 중에서는 사과, 배 등 인과류 생산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뒤이어 베리류와 핵과류 순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박류 1,785만 쉐트너(179만 톤), 포도 6,780천 쉐트너(68만 톤)가 생산

러시아 과일, 감자, 채소류 생산규모(2015~2019)

(단위 : 천 헥타르(=100kg),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과일 및 베리	합계	26,760.7	30,556.5	26,825.6	33,369.7	35,000.4	4.9	6.9
	인과류 (사과, 배 등)	14,952.5	17,258.6	15,212.0	19,974.7	21,793.3	9.1	9.9
	베리류	6,593.8	6,829.3	6,324.0	7,017.7	7,018.1	0.0	1.6
	핵과류 (자두, 체리, 복숭아 등)	5,026.8	6,240.2	5,090.6	6,156.0	5,971.3	△3.0	4.4
	감자	254,056.7	224,634.9	217,076.5	223,949.6	220,734.7	△1.4	△3.5
	채소류	131,853.3	131,806.5	136,122.8	136,852.9	141,044.6	3.1	1.7
	박류(멜론, 수박 등)	17,825.3	18,840.9	18,150.2	19,699.5	17,852.8	△9.4	0.0
	포도	5,199.8	6,013.3	5,800.8	6,277.4	6,780.0	8.0	6.9

* 출처 : 러시아 통계청(Rossstat)

- 2019년 축산물 생산액 전년 대비 5.9% 증가한 2조 7,449억 루블(한화 약 40조 1,853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4%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임
 - 육류 생산량 총 1,086만 9,400톤으로 집계, 단일 품목으로는 가금육 생산량 501만 4,300톤으로 가장 높은 수준
 - 뒤이어 돈육 393만 6,800톤, 우육 162만 5,200톤 순으로 나타나며, 특히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우유 생산량 3,136만 톤, 난(卵)류 448억 5,750만 개로 집계

러시아 축산물 부류별 생산량(2014~2018)

(단위 : 천 톤, 백만 개,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육류	전체	9,518.5	9,853.3	10,319.0	10,629.4	10,866.3	2.2	3.4
	가금류	4,540.9	4,622.4	4,941.0	4,980.0	5,014.3	0.7	2.5
	돼지	3,083.2	3,355.1	3,515.7	3,744.2	3,936.8	5.1	6.3
	소	1,617.1	1,588.8	1,569.3	1,608.1	1,625.2	1.1	0.1
	양·염소	203.8	213.2	219.5	223.8	216.8	△3.1	1.6
우유	29,887.5	29,787.2	30,184.5	30,611.0	31,360.4	2.4	1.2	
난(卵)류 (백만 개)	-	-	-	44,900.9	44,857.5	-	-	

* 출처 : 러시아 통계청(Rossstat)

2 수출입 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19년 농식품 수출액 198억 9,135만 4,000달러(한화 약 22조 6,563억 원)로 전년 대비 2.8% 감소

- 주요 수출국 터키(12.5%), 카자흐스탄(8.8%), 이집트(7.4%)로 집계
 - 對터키 수출액 전년 대비 32.8% 증가한 24억 9,111만 4,000달러(한화 약 2조 8,374억 원)로 집계, 최근 5년간 연평균 8.2% 증가
 -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액 17억 5,010만 1,000달러(한화 약 1조 9,934억 원)로 전년 대비 17.3% 증가
 - 對이집트 수출액 전년 대비 31.6% 감소한 14억 6,941만 1,000달러(한화 약 1조 6,737억 원)로 집계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13,343,988	13,963,490	17,090,764	20,466,244	19,891,354	100.0	△2.8	10.5
1 터키	1,820,186	1,674,317	1,743,589	1,876,240	2,491,114	12.5	32.8	8.2
2 카자흐스탄	1,288,072	1,300,697	1,424,102	1,485,654	1,750,101	8.8	17.8	8.0
3 이집트	1,019,580	1,238,058	1,779,950	2,147,446	1,469,411	7.4	△31.6	9.6
4 중국	340,486	536,518	647,422	971,885	1,433,353	7.2	47.5	43.2
5 벨라루스	725,960	766,134	966,240	1,173,960	1,252,497	6.3	6.7	14.6
6 이란	478,953	429,499	550,347	791,246	962,470	4.8	21.6	19.1
7 우크라이나	539,219	547,084	637,810	620,251	649,576	3.3	4.7	4.8
8 아제르바이잔	662,812	525,491	579,213	409,303	606,212	3.0	48.1	△2.2
9 방글라데시	153,639	300,267	354,314	395,338	541,489	2.7	37.0	37.0
10 우즈베키스탄	274,990	286,389	306,559	354,646	460,688	2.3	29.9	13.8

* 출처 : Global Trade Atlas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 수출 주력 품목 밀과 메슬린(31.8%)이며 이 외 조유와 곡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기타 밀과 메슬린' 수출액 전년 대비 24.1% 감소한 63억 1,558만 5,000달러(한화 약 7조 1,935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31.8% 차지
 - '조유' 수출액 전년 대비 36.3% 증가한 25억 6,115만 7,000달러(한화 약 2조 9,172억 원)로 전체 수출의 12.9% 차지
 -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보리, 옥수수 등 곡류와 대두 등 곡류 및 대두류의 수출이 주를 이루며, 가공식품 중에서는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13,343,988	13,963,490	17,090,764	20,466,244	19,891,354	100.0	△2.8	10.5
1 기타 밀과 메슬린	3,915,100	4,170,992	5,736,495	8,324,531	6,315,585	31.8	△24.1	12.7
2 조유(粗油)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793,974	1,006,403	1,322,084	1,186,536	1,732,325	8.7	46.0	21.5
3 기타 보리(종자 제외)	942,265	423,284	731,210	1,024,641	760,690	3.8	△25.8	△5.2
4 기타 옥수수(종자 제외)	598,470	855,938	839,312	849,261	611,443	3.1	△28.0	0.5
5 조유(粗油)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183,237	163,587	231,561	353,332	496,116	2.5	40.4	28.3
6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288,298	318,426	359,630	422,609	483,113	2.4	14.3	13.8
7 기타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397,139	433,908	458,655	420,287	470,728	2.4	12.0	4.3
8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	252,465	235,064	187,258	227,453	353,476	1.8	55.4	8.8
9 조유(粗油)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269,745	304,174	348,371	339,757	332,716	1.7	△2.1	5.4
10 기타 대두(종자 제외)	119,595	132,651	166,935	289,127	278,431	1.4	△3.7	23.5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19년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도와 유사(0.6% 증가)한 278억 2,857만 3,000달러 (한화 약 31조 6,967억 원)

- 주요 수입국 벨라루스(14.0%), 중국(5.8%), 브라질(5.3%), 독일(5.1%), 에콰도르(4.4%) 순으로 집계
 - 벨라루스산 농식품 수입액 전년 대비 2.4% 증가한 38억 8,673만 1,000달러(한화 약 4조 4,270억 원)로 집계, 최근 5년간 연평균 6.1% 증가
 -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 16억 2,750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8,537억 원)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으며, 브라질산 전년 대비 8.5% 증가한 14억 7,611만 3,000달러(한화 약 1조 6,813억 원)로 집계
 - 독일과 에콰도르산 농식품 수입액 전년 대비 각각 3.6%, 2.6% 감소한 14억 1,259만 4,000달러(한화 약 1조 6,089억 원), 12억 1,715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3,863억 원)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25,603,384	23,990,929	27,027,188	27,670,067	27,828,573	100.0	0.6	2.1
1 벨라루스	3,071,109	3,148,941	3,684,187	3,795,119	3,886,731	14.0	2.4	6.1
2 중국	1,584,528	1,626,053	1,721,338	1,748,963	1,627,505	5.8	△6.9	0.7
3 브라질	2,559,962	2,192,838	2,480,753	1,360,363	1,476,113	5.3	8.5	△12.9
4 독일	1,017,870	1,067,998	1,294,015	1,465,522	1,412,594	5.1	△3.6	8.5
5 에콰도르	1,119,140	1,176,653	1,261,453	1,249,224	1,217,155	4.4	△2.6	2.1
6 이탈리아	731,918	784,959	987,870	1,133,960	1,104,107	4.0	△2.6	10.8
7 터키	1,360,190	595,946	781,288	880,732	1,000,684	3.6	13.6	△7.4
8 프랑스	747,902	718,539	899,095	943,075	898,071	3.2	△4.8	4.7
9 인도네시아	860,007	830,444	947,669	919,821	850,163	3.1	△7.6	△0.3
10 네덜란드	783,411	610,714	608,286	634,891	687,098	2.5	8.2	△3.2

* 출처 : Global Trade Atlas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 신선 및 건조 바나나 수입액 11억 1,989만 4,000달러(한화 약 1조 2,756억 원)로 가장 높은 수입 규모 보임
 - 뒤이어 포도주(2리터 이하) 수입액 전년 대비 12.9% 증가한 8억 7,330만 2,000달러(한화 약 9,947억 원), 기타 치즈 수입액 16.5% 증가한 8억 7,151만 7,000달러(한화 약 9,927억 원)로 각각 전체 수입의 3.1% 차지
 - 이 외에도 냉동 쇠고기 7억 9,002만 3,000달러(한화 약 8,998억 원), 기타 대두 7억 8,827만 2,000달러(한화 약 8,978억 원) 순으로 집계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25,603,384	23,990,929	27,027,188	27,670,067	27,828,573	100.0	0.6	2.1
1 바나나 (신선 및 건조)	909,850	999,212	1,140,357	1,154,637	1,119,894	4.0	△3.0	5.3
2 포도주(2리터 이하)	485,934	513,461	752,159	773,312	873,302	3.1	12.9	15.8
3 기타 치즈	604,967	604,278	733,484	748,308	871,517	3.1	16.5	9.6
4 쇠고기(냉동) 뼈 없는 것	1,092,190	767,073	853,383	857,672	790,023	2.8	△7.9	△7.8
5 기타 대두 (종자 제외)	939,719	975,898	963,850	989,584	788,272	2.8	△20.3	△4.3
6 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	640,418	647,018	702,599	748,762	663,036	2.4	△11.4	0.9
7 기타 조제 식료품	434,002	462,131	583,495	625,204	653,670	2.3	4.6	10.8
8 토마토(신선)	681,999	492,202	561,557	631,490	636,653	2.3	0.8	△1.7
9 버터	288,378	365,853	486,850	379,513	560,717	2.0	47.7	18.1
10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251,483	279,604	386,238	363,909	432,931	1.6	19.0	14.5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나. 한국의 對러시아 농식품 수출현황

■ 2019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의 對러시아 수출액 1억 6,851만 3,800달러(한화 약 1,919억 원)로 전년 대비 10.8% 감소

- ‘커피크리머’와 ‘소스, 소스제조용 조제품’ 수출액 비중 각각 8%로 집계
 - 커피크리머 수출액 1,367만 달러(한화 약 152억 원)로 전년 대비 18.9% 감소한 반면 소스, 소스제조용 조제품 수출액 1,360만 8,300달러(한화 약 151억 원)로 전년 대비 9.1%, 2015년 이후 연평균 11.3% 성장세
- 김(7.4%), 물(6.4%), 밀크 대용물 함유 조제품(4.5%) 순으로, 모든 품목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
 - 김 수출액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212만 8,300달러(한화 약 135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30.9% 기록
 - 물 수출액 전년 대비 46.4% 증가한 1,080만 8,300달러(한화 약 123억 원), 밀크대용물 함유 조제품 수출액 764만 4,200달러(한화 약 87억 원)로 전년 대비 15.2% 증가

한국의 對러시아 농식품 수출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129,768.0	120,025.5	145,580.7	188,817.2	168,513.8	△10.8	6.7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對러시아 수출 상위 5개 품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129,768.0	120,025.5	145,580.7	188,817.2	168,513.8	100.0	△10.8	6.7
1 커피크리머	14,336.0	12,288.0	13,567.0	16,850.8	13,670.0	8.1	△18.9	△1.2
2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등)	8,876.4	8,463.0	9,815.0	12,472.5	13,608.3	8.1	9.1	11.3
3 김	4,125.9	4,015.0	14,318.5	10,351.8	12,128.3	7.4	17.2	30.9
4 물(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착색한 것)	2,764.9	5,162.0	7,305.4	7,384.5	10,808.3	6.4	46.4	40.6
5 밀크 대용물 함유조제품	5,384.4	4,421.4	4,771.4	6,632.9	7,644.2	4.5	15.2	9.2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II

농식품 시장 현황

러시아

1 시장 개요

가. 시장규모 및 특성

- 2019년 식품 시장규모 전년 대비 소폭(1.1%) 증가한 2,267억 4,780만 달러(한화 약 258조 2,657억 원)로 집계
 - 신선식품 시장규모 전체의 59.6%에 해당하는 1,350억 8,270만 달러(한화 약 153조 8,592억 원)로, 채소류 및 과일류보다 육류와 낙농품(난류 포함) 시장이 더 큰 규모로 형성
 - 육류 시장규모 491억 4,390만 달러(한화 약 55조 9,749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21.7%) 차지, 뒤이어 낙농품 시장 비중 14.7%, 채소류 시장 11.1%, 과일 및 견과류 9.5% 순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916억 6,510만 달러(한화 약 104조 4,065억 원)로 전체 식품시장의 40.4% 차지
 - 스낵류 시장규모 전체의 19.7%,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시장규모 11.5% 차지

식품 시장규모(2015~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19)
전체	210,392.9	204,606.6	215,538.1	224,231.8	226,747.8	100.0
신선식품	125,929.8	121,909.2	128,374.2	133,549.6	135,082.7	59.6
- 육류	45,973.0	44,499.4	46,740.9	48,576.8	49,143.9	21.7
- 낙농품	31,238.7	30,195.5	31,792.2	33,040.1	33,362.4	14.7
- 채소류	23,228.9	22,521.8	23,785.2	24,794.2	25,112.5	11.1
- 과일 및 견과류	20,074.8	19,450.9	20,528.6	21,385.5	21,645.9	9.5
- 유지류	5,414.4	5,241.6	5,527.3	5,753.0	5,818.0	2.6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19)
가공식품	84,463.1	82,697.4	87,163.9	90,682.2	91,665.1	40.4
- 스낵류	41,161.9	40,029.0	42,339.4	44,159.2	44,733.7	19.7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24,227.2	23,467.5	24,760.6	25,786.8	26,093.3	11.5
- 편의식품	9,527.1	9,267.1	9,818.6	10,268.0	10,433.0	4.6
- 소스 및 향신료	4,993.3	4,835.8	5,101.2	5,311.6	5,373.6	2.4
- 스프레드 및 당류	4,424.7	4,009.4	4,000.6	3,971.1	3,837.3	1.7
- 영유아용 식품	128.9	1,088.6	1,143.5	1,185.5	1,194.2	0.5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규모 제외)

나. 소비인구 및 특성

- 2020년 인구 수 1억 4,172만 2,205명, 중위연령 40.3세로 젊은 세대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편
 - 25~54세의 비중은 43.38%로 집계되었으며, 뒤이어 14세 이하 17.24%, 65세 이상의 비중 15.53%,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중위연령 43.2세인 반면, 남성의 중위연령 37.5세로 집계되어 비교적 여성의 평균 연령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인구 수 전체 인구의 53.75%에 해당하는 7,616만 8,553명으로 집계, 남성 인구 수 6,555만 3,652명으로 46.25%를 차지함
- 2019년 러시아의 1인당 연간 가구소득은 6,534달러(한화 약 744만 원)로, 전년도 6,353달러(한화 약 724만 원)에서 소폭 상승함
- 2019년 식품 부문 1인당 연간 소비액 1,544달러(한화 약 176만 원)로 전년 대비 1.1% 증가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926달러(한화 약 105만 원)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 (1.1% 증가)
 - 육류 소비액이 337달러(한화 약 38만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낙농품 229달러(한화 약 26만 원), 채소류 172달러(한화 약 20만 원), 과일 및 견과류 148달러(한화 약 17만 원) 순

II. 농식품 시장 현황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 628달러(한화 약 72만 원)로 스낵류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 비중 높게 나타남
 - 스낵류 소비액 307달러(한화 약 35만 원)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는 1인당 연평균 179달러(한화 약 20만 원)를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

품목별 1인당 연간 소비액(2015~2019)

(단위 :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전체	1,458.0	1,408.4	1,317.6	1538.62	1,554.4	1.1
신선식품	868.57	839.16	718.68	916.38	926.03	1.1
- 육류	317.09	306.31	321.18	333.32	336.90	1.1
- 낙농품	215.46	207.85	218.46	226.71	228.71	0.9
- 채소류	160.22	155.03	16.44	170.13	172.15	1.2
- 과일 및 견과류	138.46	133.89	141.06	146.74	148.39	1.1
- 유지류	37.34	36.08	37.98	39.48	39.88	1.0
가공식품	589.46	569.25	598.94	622.24	628.40	1.0
- 스낵류	283.90	275.54	290.93	303.01	306.66	1.2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67.10	161.54	170.14	176.94	178.88	1.1
- 편의식품	65.71	63.79	67.47	70.46	71.52	1.5
- 소스 및 향신료	34.44	33.29	35.05	36.45	36.84	1.1
- 스프레드 및 당류	30.52	27.60	27.49	27.25	26.31	△3.4
- 영유아용 식품	7.79	7.49	7.86	8.13	8.19	0.7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규모 제외)

- 신선식품 소비량 중 1인당 연간 채소류 소비량이 149.81kg로 가장 높으며, 뒤이어 낙농품 77.24kg로 활발히 소비됨
 - 1인당 연간 과일 및 견과류 소비량 68.93kg, 육류 55.99kg 순으로 집계
- 가공식품 중에서는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 83.53kg로 최고 수준
 - 스낵류 소비량 54.10kg로 뒤를 이으며, 이 외에도 편의식품 16.26kg, 스프레드 및 당류 12.10kg 순으로 나타남

1인당 식품 소비량(2015~2019)

(단위 : kg)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선식품	채소류	152.34	143.97	148.40	151.18	149.81
	낙농품	89.38	81.48	81.22	80.22	77.24
	과일 및 견과류	74.28	69.20	70.31	70.58	68.93
	육류	62.05	57.30	57.65	57.48	55.99
	유지류	7.99	7.36	7.41	7.39	7.17
가공식품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99.09	89.73	88.88	87.25	83.53
	스낵류	64.22	58.15	57.61	56.55	54.10
	편의식품	19.08	17.32	17.20	16.94	16.26
	스프레드 및 당류	15.38	13.59	13.23	12.82	12.10
	소스 및 향신료	12.28	11.12	11.03	10.83	10.37
	영유아용 식품	1.63	1.47	1.45	1.41	1.35

* 출처 : STATISTA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 환경 변화

가. 주요 트렌드

■ 코로나19로 온라인 식료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성장 가속화

- 코로나19 확산 이후 러시아 소비자의 평균 36%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³⁾
 -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연령대는 18세~35세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 균등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식품 판매에서 냉동 과일 및 채소류와 육류의 비중이 각각 1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가공식품 중에서는 냉동 스프류가 매출을 주도했으며, 가정에서 요리 시 활용되는 식재료 매출 증가
 - 2020년 3월 기준 메밀, 쌀, 설탕의 온라인 소비 전년 동월대비 각각 66%, 64%, 56%의 높은 성장세 기록
 - 러시아인들은 가정에서 조리한 수프, 육류 및 생선요리, 채소, 카샤(메밀) 등의 메뉴를 건강한 저녁 식사 식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유기농 및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제 등의 수요 확대

- 코로나9 이후 유기농 및 건강식품 시장규모 전년 동기간 대비 23% 성장
 -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관련 제품 소비 확대 추세
- 2020년 3월 기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및 영양제 등 건강보조제의 온라인 구매액 전주 대비 25% 증가

3) Deloitte

■ 알코올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주류 수요 증가

- 2020년 3월 기준, 러시아 내 전반적인 주류 판매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알코올 섭취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주류 소비를 일시적으로 촉진함
 - Nielsen의 조사에 따르면 동기간 러시아 최대 소매체인에서의 보드카 판매는 전년 동기간 대비 31% 증가, 위스키와 맥주 판매 역시 각각 47%, 25% 증가함

나. 이슈품목

■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조리가 간편하고 유통기간이 긴 냉동식품 소비 증가 추세

- 냉동 수프, 육가공품, 베이커리류 뿐만 아니라 딸기, 브로콜리, 청포도 등의 냉동 채소 및 과일류의 수요가 증가함
- 저장기간이 길고 한 끼 식사 대응으로 소비할 수 있는 냉동만두(펠메니)의 수요는 더욱 증가
 - 펠메니는 우리나라의 만두와 유사한 형태인 러시아 전통 음식으로, 전 소득층에서 가장 인기 있는 냉동식품으로 꼽힘
 -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도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수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러시아 온라인 소매점에서 판매 중인 냉동식품류

		
냉동 수프	냉동 페이스트리	냉동 팬케이크

* 출처 : www.ozon.ru

■ 집콕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가정에서도 미식을 즐기기 위한 방편으로 스낵류 수요 증가

- 온라인 소매업체 Wildberries와 Ozon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4월 러시아 전역의 제과류 판매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증가
 -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액체 캐러멜(229%), 머핀(228%), Kozinaki(201%), 과일 향료(198%), 마시멜로(137%), 와플(120%)의 수요가 크게 증가
- 건강한 간식에 대한 소비자 관심 확대로 다크 초콜릿 및 무설탕 과자 수요도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

러시아 온라인 소매점에서 판매 중인 건강 간식류



* 출처 : www.ozon.ru

3 농식품 관련 정책동향

- 러시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곡물 수출을 중단한 바 있음
 - 2020년 3월 20일부터 약 10일간 모든 종류의 곡물에 대해 수출을 임시 제한함
 - 곡물 수출 제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코로나19가 자국 내 확산되며 곡물 등을 비롯한 식품 품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안정화하기 위함으로 추정됨
 - 이후 수출이 재개되었으나 4월부터 6월 말까지 밀, 옥수수, 보리 등의 수출물량을 700만 톤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로 식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 농업 및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함
 -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미국, EU 등에서 경제 제재를 가함
 - EU는 러시아의 합병을 규탄하면서,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이나 재정적 투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2020년 6월에는 이러한 제재를 2021년까지 연장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EU산 농식품 수입을 금지하였고 또한 루블화 평가 절하로 인해 수입규모가 감소하면서 자국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 러시아 정부는 자국 농업 및 농식품 산업 발전을 주도하며 경제 제재에 대응하고 있음
 - 국산 농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산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지함
 - 그 결과 1987~1991년 ha당 1.63톤에서 2017~2019년 ha당 2.81톤으로 곡물 생산성이 증대되고 수출이 확대됨



농식품 유통 현황

러시아

1 유통 현황 및 특징

■ 오프라인 유통 비중이 대부분(99.3%), 온라인 유통채널 비중 0.7%에 불과

- 2019년 오프라인 식품 시장규모 12조 3,818억 루블(한화 약 181조 2,696억 원)로 전년 대비 6.4% 증가함
 - 이 중 현대식 유통채널의 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9.7% 증가한 8조 6,835억 루블(한화 약 127조 1,264억 원)로 전체 유통채널의 70.1% 차지
 - 현대식 유통채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슈퍼마켓(39.5%)은 전년 대비 11.6%의 증가세로 4조 8,963억 루블(한화 약 71조 6,818억 원) 규모 기록
 - 편의점의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편의점의 식품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1조 8,158억 루블(한화 약 26조 5,833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1.4% 증가세
 - 하이퍼마켓에서의 식품 매출액은 전체의 15.1%에 해당하는 1조 8,698억 루블(한화 약 27조 3739억 원)로 전년 대비 2.2% 증가
 - 전통식 유통채널 비중 전체의 29.9%에 해당하는 3조 6,983억 루블(한화 약 54조 1,431억 원) 최근 5년간 연평균 1.6%의 지속적 감소세

러시아 오프라인 식품시장 규모(2015~2019)

(단위 : 10억 루블,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합계	10,219.8	10,478.8	11,020.0	11,632.3	12,381.8	100.0	6.4	4.9
현대식 유통채널	6,274.2	6,702.1	7,216.0	7,913.3	8,683.5	70.1	9.7	8.5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 편의점	1,179.8	1,327.4	1,394.1	1,601.6	1,815.8	14.7	13.4	11.4
- 포코트 리테일러 ¹⁾	81.1	84.9	89.3	95.1	101.6	0.8	6.8	5.8
- 하이퍼마켓 ²⁾	1,737.3	1,826.6	1,830.0	1,830.4	1,869.8	15.1	2.2	1.9
- 슈퍼마켓	3,276.0	3,463.2	3,902.6	4,386.2	4,896.3	39.5	11.6	10.6
전통식 유통채널	3,945.6	3,776.7	3,804.0	3,719.0	3,698.3	29.9	△0.6	△1.6

* 주1 : 포코트 리테일러(Forecourt Retailer) : 주유소 내 위치한 소규모 매점

* 주2 : 하이퍼마켓(Hypermarket) : 슈퍼마켓·대형 할인점·백화점의 형태가 결합된 대규모 소매 점포

* 출처 : Euromonitor

■ 2019년 온라인 식품 시장규모 891억 루블(한화 약 1조 3,044억 원)로 전년 대비 39.0%의 성장률 기록

- 2015년 266억 루블(한화 약 3,894억 원) 수준에 불과하던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 연평균 35.3%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

러시아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2015~2019)

(단위 : 10억 루블,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자상거래	26.6	32.2	44.0	64.1	89.1	39.0	35.3

* 출처 : Euromonitor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가. 오프라인 유통채널

■ 동년 현대식 유통채널 수 7만 9,980개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8.4% 증가함

- 백화점은 주요 도시를 위주로 입점되어 있으며, 판매되는 농식품 가격이 매우 비싸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은 편

매장명	TsUM (TD TSUM OAO)	Stockmann (Reviva Holdings Ltd)	DLT (TD TSUM OAO)
매장사진			
설립연도	1857	1862년	1991년
점유율	28.1%	25.7%	8.5%
매장수	2개	11개	1개
홈페이지	www.tsum.ru	www.stockmann.com	dlt.ru

* 출처 : alamy.es, 해당 업체 홈페이지

- 전통적 식료품점이 편의점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특히 도시 외곽 지역에서의 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최근 편의점 브랜드인 Vkusvill에서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식료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여 농장에서 직접 수급한 신선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며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음

(단위 : 10억 루블, %)

매장명	Magnit (Magnit PAO)	Diksi (DKBR Mega Retail Group Ltd)	Fasol (Metro AG)	Vkusvill (Vkusvill OOO)
매장사진				
설립연도	1994년	1992년	2001년	2009년
점유율	55.7%	14.3%	7.8%	4.1%
매출액 ¹⁾	1011.4	259.6	141.6	74.4
매장수	14,927개	2,578개	1,450개	939개
홈페이지	magnit.ru	dixy.ru	brandford.ru	vkusvill.ru

* 주1 : 매출액은 2019년 러시아 편의점 총 매출액과 매장별 점유율에 기반하여 추산한 값임

* 출처 : alamy.es, saint-petersburg.com

- 슈퍼마켓은 가격경쟁력, 서비스 품질 제고, 소비자의 시간 절약, 제품의 다양화, 편의성 및 현대적인 인프라로 인해 주요 쇼핑 채널로 자리매김
 - 편의점에 비해 편리한 위치와 더 넓은 구색을 갖추었으며, 소비자의 구매력이 낮은 지역 또는 교통량이 많은 도시지역의 소비자는 하이퍼마켓보다 슈퍼마켓을 선호함
 - Spar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매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셀프계산, LCD 디스플레이에 레시피 설명 등의 현대적인 기술을 구현함

(단위 : 10억 루블, %)

매장명	Pyaterochka (X5 Retail Group NV)	Perekrestok (X5 Retail Group NV)	Magnit (Magnit PAO)
매장사진			
설립연도	1999년	1995년	1994년
점유율	28.3%	5.6%	4.4%
매출액 ¹⁾	1,385.6	274.1	215.4
매장수	15,248개	810개	487개
홈페이지	5ka.ru	perekrestok.ru	magnit.ru

* 출처 : alamy.es, 해당 업체 홈페이지

III. 농식품 유통 현황

- 하이퍼마켓 감소세로, 소비자는 신선한 식료품 구매를 위해 자주 방문이 가능한 슈퍼마켓을 이용
 - 주요 하이퍼마켓은 푸드코트, 셀프 계산대, 어린이 구역 및 인테리어 개발 등으로 매장 환경을 개선하여 소비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천연 및 신선식품의 취급 비중을 늘리는 추세

(단위 : 10억 루블, %)

매장명	Lenta (Lenta Group SA)	Auchan (Auchan Group SA)	O'Key (O'Key Group SA)
매장사진			
설립연도	1993년	1961년	2001년
점유율	23.9%	9.7%	6.9%
매출액 ¹⁾	446.8	181.3	129.0
매장수	252개	60개	78개
홈페이지	lenta.ru	www.auchan.ru	www.okmarket.ru

* 주1 : 매출액은 2019년 러시아 하이퍼마켓 총 매출액과 매장별 점유율에 기반하여 추산한 값임

* 출처 : esmmagazine.com, lebensmittelzeitung.net, kr.123rf.com

■ 2019년 전통식 유통채널의 점포 수 전년 대비 3.3% 감소한 21만 6,465개로 집계

- 전통식 유통채널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현대식 유통채널로 전환
 - 소비자 구매력이 높은 대도시에 위치한 Bazaar(시장)는 정부의 리 브랜딩 정책을 통해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방문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음
 - 정부 정책을 통해 제품 품질 및 유통기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건강한 식료품을 유통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나. 인프라 재개발로 제품가격이 상승했다는 단점도 발생
 - 윈스톱 쇼핑이 가능한 현대식 유통채널과는 반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소매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 러시아 소비자들은 오픈마켓과 바자회에서 판매되는 식료품을 더욱 신선하다고 인식하며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선호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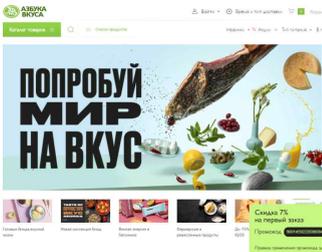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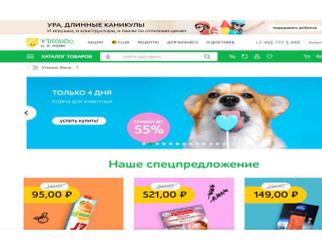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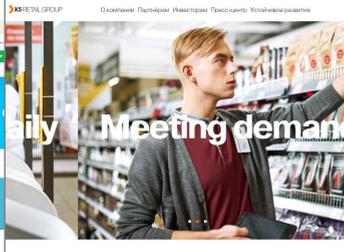
매장명	Central market in Kaliningrad	Central Market in Khabarovsk
매장사진		

* 출처 : dreamstime.com

나. 온라인 유통채널

■ 2019년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 891억 루블(한화 약 1조 3,030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5.3%, 전년 대비 39.0% 성장세

-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채널은 보다 다양한 제품 공급 및 신속한 배송 서비스 제공 등으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
 - Perekrestok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옴니채널 판매 모델을 구현한 슈퍼마켓 체인이며, Click & Collect 서비스⁴⁾와 식당 및 사무실에 음식을 공급하는 B2B서비스를 개발할 계획
 - Ozon은 모스크바에서 40분 안에 배송되는 특급 배송 서비스를 시작함

채널명	Azbuka Vkusa (Gorodskoy Supermarket OOO)	Utkonos (Novy Impuls-50)	Perekrestok Online (X5 Retail Group)
매장사진			
설립연도	2017년	2003년	2017년
홈페이지	av.ru	www.utkonos.ru	www.perekrestok.ru

* 출처 : 해당 업체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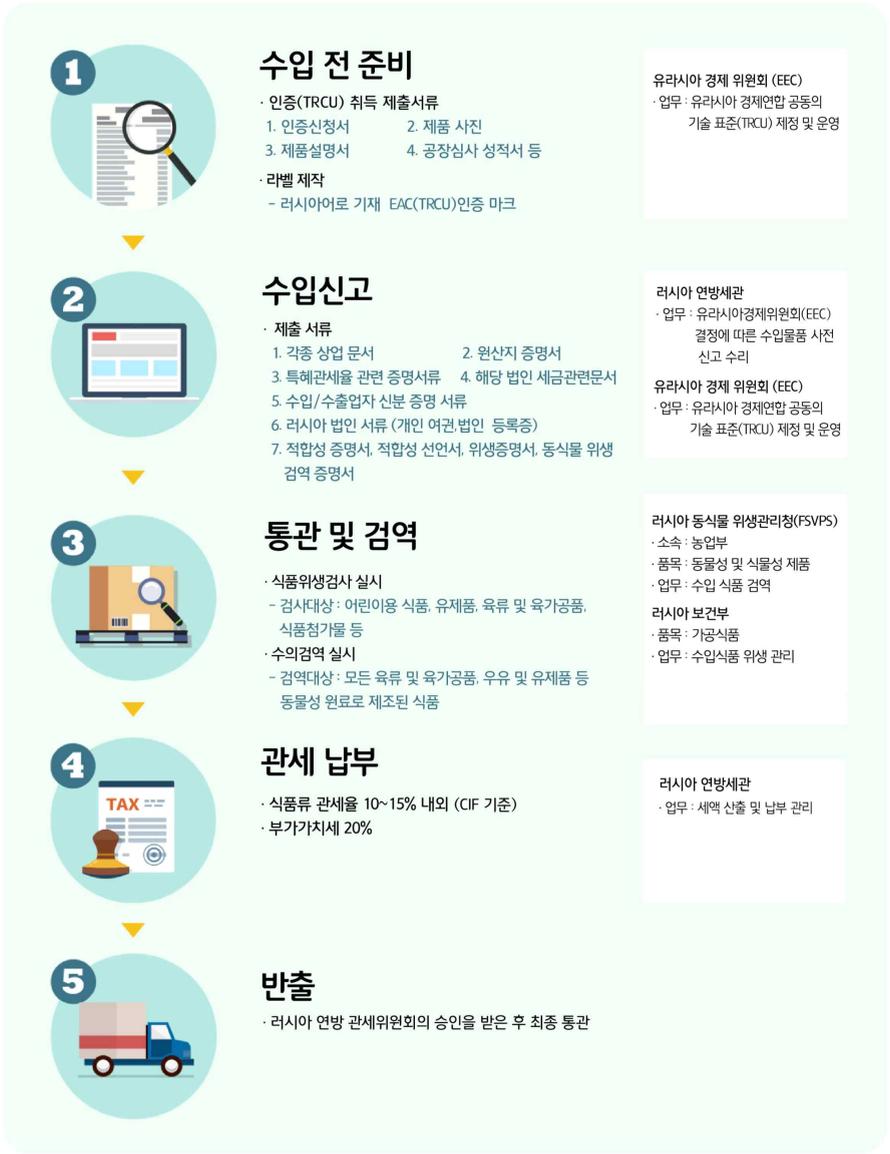
4)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의 배송을 기다리지 않고 매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는 기능. 배송비가 들지 않으며 빠르게 수령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러시아

1 수출 프로세스



2 수입제도

가. 통관제도

■ 러시아로 수출 시 TR CU 인증 취득이 요구됨

- 곡물류, 채소 및 과일음료, 유지류,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등 식품안전 관련 규정(TP TC 021/2011)에서 정하는 품목이 해당됨

■ EDI를 통한 수입신고는 현재 도입 단계로, 서류 또는 디스켓을 제출함

- 통관서류로는 세관신고서,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등이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등은 품목별로 추가 제출
- 제품설명서 및 라벨링 등은 러시아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류상 경미한 실수도 세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 및 규제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재

■ 검역 및 식품위생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음

- Russian Veterinary Service에서 육류 및 가금류 식품의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수의 인증서가 요구됨
- 수입되는 식품이 인체에 유해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식품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음
-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서류를 확인하고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센터에 식품 위생 검사를 요청
- 러시아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러시아 관할 세관에 통보

■ 관세 및 제세 납부까지 완료한 후 최종 통관결정을 받아 물품을 반출

- 평균 수입관세는 13%로 CIF가격 기준 종가세를 부과하며, 일부 상품은 종량세 및 수량세, 증가·종량혼합세를 적용함
- 러시아 연방관세위원회(Federal Customs Committee)에 모든 서류 사본이 송부된 후 연방관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통관 결정이 내려지면 반출 가능함

나. 검사 및 검역제도

■ 러시아로 수출되는 농식품은 식품위생 검사를 거쳐 국내로 반입됨

- 식품위생 검사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
- 미네랄 워터(일반, 치료용 모두)
 - 어린이용 식품(모유 대용품, 시리얼, 우유,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으로 제조된 제품, 유아용 식품, 유아용 허브차, 임산부 및 모유를 먹이는 여성용 식품 등 포함)
 - 식이요법 제품
 - 유제품
 - 육류 및 육가공품
 - 식품첨가물
 - 생물학적 활성 식품 첨가물
 - 유전자 변형으로 제조된 식품
 - 신기술로 제조된 식품(식품 원자재 포함)

-
- 육류 및 육가공품, 우유 및 유제품, 동물성 원료로 제조된 식품 등은 수의검역 대상에 해당

-
- 모든 종류의 동물
 - 고기 통조림, 소시지 등 가공육류
 - 수출국 위생검사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득한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수입 가능
 - 건강한 가축을 도살한 제품으로 제조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된 사료로 사육되지 않은 가축이어야 함
 - 질병이 없는 가축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함
 - 우유 및 유제품
 - 동물 전염병이 없는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
 - 수출국 위생검사기관의 통제를 받고 허가를 득한 제조업체의 제품
 - 동물성 원료로 제조된 식품
 - 동물이 원료인 기타 제품
 - 동물 사료
 - 동물 의약품 등

-
- 식물검역은 러시아 연방식물검역소에서 담당하며, 검사 담당 직원이 국경에서 제품을 검사함

■ 공식적으로 對러시아 수출 가능 여부가 확인된 농산물은 6개 품목 55종이며, 자두, 복숭아, 아몬드 등 3개 묘목류 수출 불가함

- 수출 가능 품목은 품목에 따라 재배지 검역 실시 후 수출이 가능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 식물위생요건 확인 필요
- 버섯 및 화훼류 기타 품목은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 수출이 불가능함

수출가능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옥수수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석류 • 채소류 :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양파 • 종자류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양파, 콜라비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화훼류 기타 : 심비디움, 팔레놉시스(호접란)
수출불가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목류 : 자두 묘목, 복숭아 묘목, 아몬드 묘목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다. 라벨링 규정

■ 러시아의 라벨링 규정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 제품에 따라 규정된 기준 준수 필요

-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식품 라벨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며 모든 정보는 러시아어로 표기되어야 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제조업체(업체명, 국가, 법적 등록 주소) • 제조업체의 상표(있는 경우) • 순중량 혹은 양 혹은 수량 • 구성 성분 • 영양성분(칼로리, 단백질·지방·탄수화물·비타민·다량 영양소·미량 원소함량 등) • 사용 용도와 방법(어린이용 식품, 다이어트 식품, 생물학적 활성 첨가물의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석섭취식품 조리법에 대한 권고사항(농축 및 반가공식품의 경우) • 유통기한 • 식품의 보관 방법 및 보관 기간 • 제조일과 포장일 • 제품 제조 시에 의거해서 만든 적용된 규범서류 • 적합성 인증 정보 |
|---|--|

- 추가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마크를 부착하거나 특정 내용을 라벨에 기재해야 함
 - 냉장(냉동)된 육류, 가금류, 내장, 완제품 등의 모든 육류 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 마크를 부착해야 함
 - 진공포장 또는 가스충전포장의 경우에는 포장 방식을 라벨로 부착해야 함
 - 완제품 통조림의 경우 최종 조리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기재해야 함

주요 품목 식품 표기사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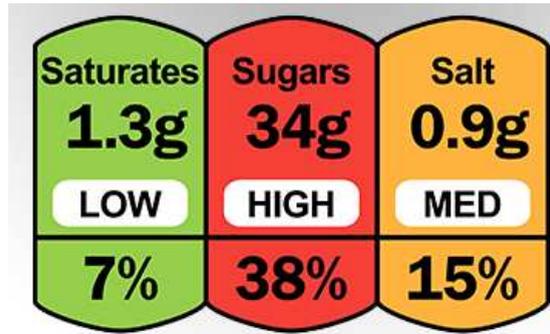
	필수 표기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 : Dumplings 2. 제조업체 : Pelsesiki 3. 순중량 : 500g 4. 원산지 : 러시아 5. 구성성분 : 쇠고기, 가금류, 밀가루, 식수, 순무, 양파, 계란, 소금, 후추, 식물성 기름 6. 영양가 : 제품 100g 당 영양 및 에너지 : 열량 272kcal, 단백질 9.5g, 지방 16.0g, 탄수화물 23g 7. 보관조건 : -18도에는 90일, -22도이하는 180일 보관가능 8. 유통기한 : 별도표기 9. 인증마크 : 러시아표준규격 인증서(GOST-R) <p>* 콩과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 국내산 냉장고기로 제조된 어린이 권장식품</p>

* 출처 : www.etiketki24.ru

■ 영양성분 표시는 제품에 함유된 기본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량 표기 없이 나열할 수 있음

- 일일섭취권장량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함
 - 100g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또는 칼로리가 일일권장섭취량의 2% 이상일 경우 표시 필요
 - 100g당 미네랄, 비타민이 일일권장섭취량의 5% 이상일 경우 표시 필요
- 식품 속 특정 성분을 함량에 따라 신호등의 세 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자율적 '신호등 표시제' 실시
 - 신호등 표기는 나트륨, 설탕, 지방산의 함량을 일일권장소비량을 기준으로 %로 표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록, 노랑, 빨간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구분	초록색/100g당	노란색/100g당	빨간색/100g당
지방	3g 미만	3~17.5g	17.5g/100g 초과 혹은 21g/1인분
포화지방	1.5g 미만	1.5~5g	5g/100g 초과 혹은 6g/1인분
설탕	5g 미만	5~22.5g	22.5g/100g 초과 혹은 27g/1인분
나트륨	0.3g 미만	0.3~1.5g	1.5g/100g 초과 혹은 1.8g/1인분



■ 식품 포장 표시에 대한 기술규정(TR TS 022/2011) 중 표시 기준이 개정됨

- 2018년 9월 14일 유라시아 경제연합 경제위원회 협의회 결정 No.75를 통해 식품포장에 관한 기술규정이 일부 수정되어 더욱 명확한 기준을 가짐
 - 제품 고유의 명칭이 있는 경우, 제품명을 걸면 포장에 표기해야 함
 - 제조일 및 만료일에 대한 정보는 소문자 기준 2mm 이상인 글꼴을 사용해야 함
 - 권장사항 및 사용제한에 대한 정보와 전문식품제품에 제공되는 정보, 즉, 제조일, 유통기한, 유효기간과 같은 정보는 소문자 기준 0.8mm 이상의 글꼴을 사용해야 함
 - 가독성은 포장에 제품명과 제품 정보를 표기한 글자 및 글꼴의 명확성과 판독가능성 뿐만 아니라 글자 색과 배경 색간의 색상대비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제외한 특수광학장치를 이용하지 않고도 읽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 명료성은 글 또는 글과 그림의 형태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실제 이용되었으나 식품 포장에 나타나지 않은 식품 구성 성분, 제조 시 사용되지 않았으나 포장에 표시된 식품 구성 성분, 제품의 성분을 통해 식품에 나타나지 않는 맛이나 향을 제품 포장에 표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본 결정은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시행됨(2019년 4월 27일 발효)

■ 주류, 육류, 과채류, 차·커피·음료, 우유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라벨링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음

품목	라벨링 표기방법
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드카를 포함한 맥주, 와인, 스파클링 와인, 알코올 음료 등 대부분의 주류에 적용 • 모든 주류제품은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으로 활성화 된 식품첨가물, 비전통적인 재료, 생명공학기술에서 파생 된 제품의 모든 구성요소,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 등을 표기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주 : 맥주의 종류, 알코올 % 함량(무알코올 맥주와 아로마와 맛이 첨가된 맥주는 제외), 에틸알코올의 최소 비율, 병입 날짜, 기본 원료, 영양 구성 - 와인 : 병입 시설, 병입날짜 또는 숙성날짜, 에틸알코올 비율, 당도(드라이 와인 제외) - 스파클링 와인 : 당도, 수확년도, 에틸알코올 함량 10% 미만인 와인의 유통기한, 영양성분 - 알코올 음료 : 에틸알코올 함량, 설탕 농도(설탕이 재료로 사용된 경우), 병입날짜, 구성(맛과 제품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의 목록 포함), 에틸 알코올 함량 10% 미만인 제품의 유통기한 • 2007년 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라벨에 표시해야 함 • 2018년 10월 1일부터 주류 라벨링 규정이 변경되어 부착하는 인지에 제품 정보를 기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알코올 제품의 표면에 특수 인지와 소비세 인지를 부착해야 함
육류 및 가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가금류 고기, 부산물, 소비자 편의 제품, 소시지 또는 육류 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으로 표시해야 함 • 진공팩이나 MGM 가스팩 으로 포장된 경우 가금류 고기, 소비자편의제품, 요리 재료, 소시지, 고기 제품 등으로 표시해야 함 • 캔 제품은 고기, 지방, 부산물, 식물성 원료의 성분함량을 표시해야 함
과채류 및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된 모든 신선 과채류와 감자는 제품명, 제조업체(법적 등록주소, 국가), 상표(선택사항), 순 중량 혹은 양, 품종, 상품 품종(있을 시에), 제품 가공법(필요할 시에), 홍보적 성격의 정보(필요할 시에), 수확일과 포장일, 온실재배여부, 보관법(필요할 시에), 적용된 규범서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 • 베리류, 과실, 채소, 감자의 가공품(캔 제품 포함)은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주된 제품의 비중(시럽, 마리네이드, 염수장으로 조리된 제품의 경우), 구성성분, 채소 혹은 과실의 비중(넥타 및 음료의 경우), 식품 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 활성 첨가물, 제품 영양가, 감미료 함량, 보관기간(건조된 베리, 과실, 채소, 감자의 경우) 등을 표시해야 함
차·커피·차음료 및 커피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와 커피의 명칭은 원산지로 보충될 수 있음 • 차, 커피, 차 및 커피제품 제조 시에 향미증진제가 사용된다면 향을 명칭할 수 있음(예를 들어, 레몬향의 홍차) • 차, 차 음료, 커피음료의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하고 커피의 경우 보관기간을 표시해야 함 • 진공포장일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일회용 티백, 커피백, 차음료 및 커피음료 백은 제조업체, 제조업체 상표(있을 시에), 제품명, 순 중량, 품종(있을 시에), 적용된 규범서류를 표시해야 함

품목	라벨링 표기방법
식용 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제품명을 표시해야 함(증발 소금, 암염, 침전 소금 등) • 제조업체(명칭, 국가, 법적등록주소), 제조일과 포장일, 품종, 순 중량, 제분방법, 식품 첨가물, 적용된 규범서류, 적합성 인증 정보를 표시해야 함 • 포대 혹은 포대에 붙은 라벨에는 제품명, 순 중량을 표시해야 함 • 요오드 첨가한 소금의 경우 첨가된 요오드의 형태, 요오드 함량, 일일권장량, 유효기간, 문구(유효기간이 지난 요오드 첨가한 소금은 일반식염으로 사용함 이라는 문구) 등의 부가정보를 표시해야 함
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유통 용도의 종자 패키지에 있는 라벨링에는 종자 판매자(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사용 허가된 품종개량성과 국가등록부에 입각한 식물명과 품종명, 품종품질과 파종품질에 대한 표준(기술요건) 표시, 로트 넘버, 패키지에 들어 있는 종자의 수량(개) 혹은 무게(그램), 판매기한 등을 표시해야 함 • 패키지(팩)에 명시되어 있는 로트 넘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로트넘버는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넘버와 일치해야 함 • 식물이 품종개량성과 국가등록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등록부는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판매 및 사용이 허가된 품종에 관한 목록임. 품종개량업자들이 만들고 품종테스트구역에서 생산력, 질병 및 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을 검증 받은 새로운 품종들이 매년 등록부에 올라가고 있음
환원우유 및 우유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9월 2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33/2013)’에 명시되어있는 용어, 조항, 라벨링 요건에 관한 공식 해설 발표 • 환원 우유(환원우유, reconstituted milk), 우유 음료(우유음료, milk beverage)에 대한 용어 설명은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원우유’ 정의 : 농축유·응축유 또는 분유와 물로 제조된 소비자 용기에 중량 포장된 유제품 또는 우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원료(마시는 우유 제외) - ‘우유음료’ 정의 : 우유 및(또는) 우유성분 및(또는) 유제품으로 제조된 유제품 또는 우유성분제품을 의미하며, 농축유 및(또는) 응축유 및(또는) 분유와 물로 제조된 것도 포함됨. 우유성분을 대체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그 밖의 유제품 또는 우유가 아닌 성분을 첨가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우유단백질 함량이 2.6% 이상, 탈지분유 함량이 7.4% 이상인 것(유제품의 경우) - ‘건조 우유 가공품’ 정의 : 건조물질의 질량 비중이 90%에 이를 때까지 우유에서 수분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 우유가공제품 라벨링 요건에 따르면, 환원우유의 명칭을 만들 때 제품 제조 시에 사용된 주원료를 직접적으로 명칭에 넣어줘야 함 - ‘분유로 제조된 환원우유’, ‘분유 및 응축유로 제조된 환원우유’, ‘농축유로 제조된 환원우유’ 식으로 명명

3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및 현황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러시아가 WTO에 통보한 TBT 건수는 총 19건으로, 식품 전반에 대한 통보문은 8건으로 집계
 - 국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통보문이 총 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뒤이어 소비자 보호 목적의 통보문이 7건, 하모니제이션(Harmonization)·동식물 보호·무역장벽제거 목적의 통보문이 각 1건으로 집계됨

식품 부문 TBT 통보 품목 및 목적(2015~2019)

품목	건수	통보목적(중복집계)	건수
식품 전반	8	국민 건강/안전 보호	19
기타	11	소비자 보호	7
계	19	하모니제이션	1
		동식물보호	1
		무역장벽제거	1
		계	29

* 주 : 하모니제이션이란, 관세 인하 시 높은 세율은 큰 폭으로 내리고, 낮은 세율은 작은 폭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여러 나라의 관세율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을 의미

* 출처 : WTO

- 같은 기간 동안 SPS 통보문은 총 4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한국을 특정하여 통보된 사례는 없음
 - 묘목 및 화훼류 등 식물을 대상으로 한 SPS 통보문이 1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뒤이어 식품 전반에 대한 통보문이 12건으로 집계
 - 가축 및 축산물, 낙농품에 대한 SPS 통보 건수는 5건, 종자류 2건으로 집계
 - 전체 통보문 중 25건은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건에는 한국산 농식품도 포함
 -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보문은 총 17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중 한국을 대상으로 발행된 사례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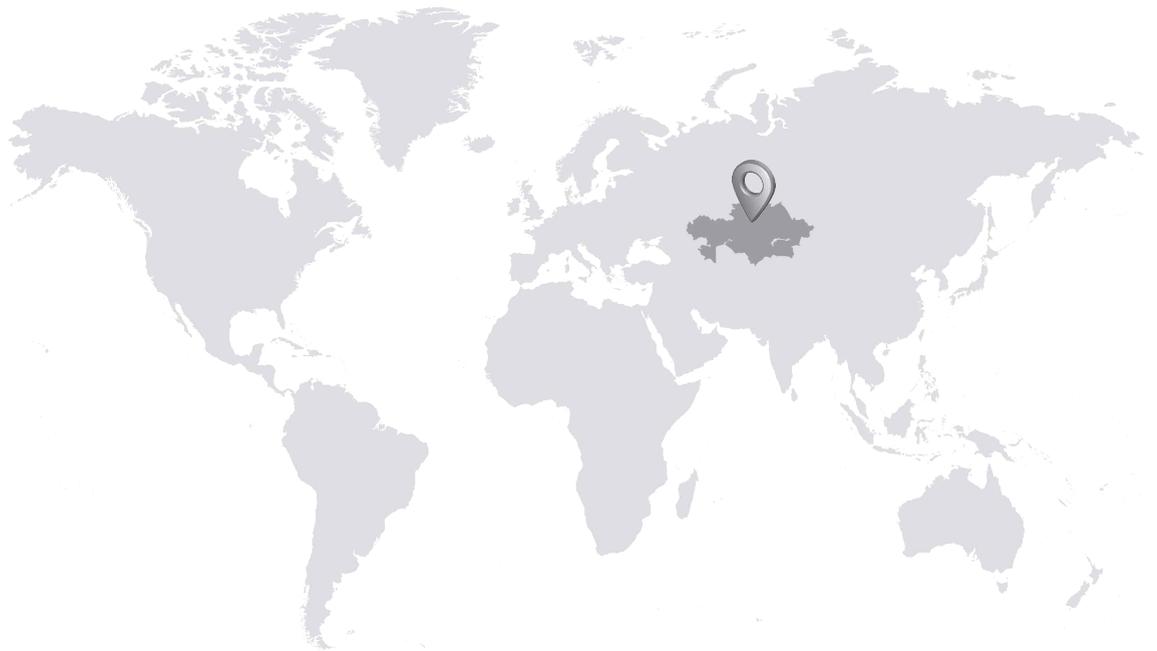
식품 부문 SPS 통보 품목 및 대상 국가(2015~2019)

품목	건수	대상국가	
		전 세계	특정국
식물(묘목, 화훼 등)	14	11	3
식품	12	2	10
가축 및 축산물, 낙농품	5	2	3
종자	2	2	0
기타(사료 및 사료첨가제)	9	8	1
계	42	25	17

* 출처 : WTO

카자흐스탄 . . .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43
1. 농업 현황	
2. 수출입 현황	
II. 농식품 시장 현황	54
1. 시장 개요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 환경 변화	
3. 농식품 관련 정책동향	
III. 농식품 유통 현황	61
1. 유통 현황 및 특징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66
1. 수출 프로세스	
2. 수입제도	
3.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및 현황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1 농업 현황

가. 농업규모

- 2019년 농업규모 3조 1,055억 6,100만 텡게(한화 약 8조 1,987억 원)로 전년 대비 12.5% 증가
 - 2015년 이후 농업규모 연평균 성장률 12.7%에 달하나, 전체 GDP에서의 농업 비중은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연평균 1.3%의 마이너스 성장세
 - 권역별 기후가 다양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업 잠재력이 높은 편, 북부지역에서 주로 밀, 보리, 기장 등을 재배하며 남부지역에서는 쌀, 과일, 채소 등을 재배
 - 밀과 쌀을 비롯한 주곡 작물과 두류 재배가 가장 활발하며, 세계 10대 주요 곡물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함

카자흐스탄 농업 부문 국내총생산액(GDP) 및 비중(2015~2019)

(단위 : 백만 텡게,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GDP ¹⁾	전체	40,884,134	46,971,150	54,378,858	61,819,536	69,532,627	12.5	14.2
	농업 ²⁾	1,925,867	2,140,008	2,456,285	2,717,499	3,105,561	14.3	12.7
	비중	4.7	4.6	4.5	4.4	4.5	1.6	△1.3

* 주1 : 당해년가격 기준 GDP

* 주2 : 농축임수산업 포함

*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ommittee on Statistics)

- 농촌 인구는 769만 7,400명, 농업 종사자 118만 4,7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고용인구 중 농업 종사자 비중 13.5%
 - 2015년 이후 5년간 농촌인구의 비중 연평균 1.1%, 농업 종사자 수 연평균 3.4%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카자흐스탄 농촌 인구 수(2015~2019)

(단위 : 천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농촌 인구	7,604.0	7,668.1	7,733.8	7,697.4	7,693.1	△0.1	0.3
전체 인구 대비 비중	43.2	42.8	42.6	41.8	41.3	△1.2	△1.1

* 주 : 농축임수산업 포함

*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농림수산업 통계모음집」

카자흐스탄 농업 고용인구(2015~2019)

(단위 : 천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고용인구	8,433.3	8553.4	8,585.2	8,695.0	8,780.8	1.0	1.0
농업 고용인구 (비중)	1,362.9 (16.2)	1385.5 (16.2)	1,319.0 (15.4)	1,228.2 (14.1)	1,184.7 (13.5)	△3.5	△3.4

* 주 : 농축임수산업 포함

*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ommittee on Statistics)

- 2019년 농경지 면적 전체 국토 면적의 8.1%인 2,213만 5,800ha로 확대
 - 곡물 및 콩류 재배면적 1,539만 6,600ha로 전체 경작지의 약 70% 차지, 이 중에서도 밀 재배면적이 1,141만 3,900ha로 가장 넓게 나타남
 - 뒤이어 유지류 재배면적 286만 1,100ha로 2015년 이후 연평균 9.2%의 성장률 기록

카자흐스탄 농지 면적(2015~2019)

(단위 : 천 ha,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경작지 ¹⁾	21,022.9	21,473.6	21,839.9	21,899.4	22,135.8	1.1	1.3
곡물 및 콩류	14,982.2	15,403.5	15,405.4	15,150.0	15,396.6	1.6	0.7
밀	11,771.1	12,437.0	11,976.6	11,409.8	11,413.9	0.0	△0.8
보리	2,119.0	1,901.9	2,084.2	2,545.2	2,994.5	17.7	9.0
귀리	213.0	211.3	215.2	239.6	245.3	2.4	3.6
옥수수	139.0	135.3	138.7	153.3	156.5	2.1	3.0
지방종자	2,009.7	2,035.7	2,478.9	2,834.2	2,861.1	0.9	9.2
아마씨	630.9	633.6	869.8	1,102.5	1,284.9	16.5	19.5
해바라기씨	740.7	835.0	895.9	856.9	818.0	△4.5	2.5
감자	190.6	186.7	183.4	193.0	193.0	0.0	0.3
채소	139.5	145.9	142.9	152.3	159.1	4.4	3.3
박류	94.7	93.9	93.8	96.1	102.1	6.2	1.9
사탕무	9.2	12.6	17.4	17.4	15.2	△12.8	13.3

* 주1 : 담배 및 사료작물 경작지 포함

*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농림수산업 통계모음집」

- 가축 사육 규모 전반적 증가세로 가금류, 양·염소, 소, 말의 사육 활발
 - 2019년 가금류 4,504만 1,400마리로 집계되며 가장 많이 사육되며, 양·염소 1,915만 5,700두, 소 743만 6,400만 두, 말 285만 2,300두, 돼지 81만 3,300두 순

카자흐스탄 가축 수(2015~2019)

(단위 : 천 마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가금류	35,632.9	36,910.1	39,913.5	44,337.9	45,041.4	1.6	6.0
양·염소	18,015.5	18,184.2	18,329.0	18,699.1	19,155.7	2.4	1.5
소	6,183.9	6,413.2	6,764.2	7,150.9	7,436.4	4.0	4.7
말	2,070.3	2,259.2	2,415.7	2,646.5	2,852.3	7.8	8.3
돼지	887.6	834.2	815.1	798.7	813.3	1.8	△2.2
낙타	170.5	180.1	193.1	207.6	216.4	4.2	6.1

*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농림수산업 통계모음집」

나. 주요 생산 품목 및 규모

■ 2019년 농업 생산액 5조 1,511억 6,300만 텡게(한화 13조 6,506억 원)로 전년 대비 15.1% 증가

- 농산물 생산액 전년 대비 16.8% 증가한 2조 8,176억 606만 텡게(한화 7조 4,667억 원)로 최근 5년간 11.5%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축산물 생산액 전년 대비 12.1% 증가한 2조 3,194억 9,670만 텡게(한화 약 6조 1,467억 원)로 집계

카자흐스탄 농업 생산액(2015~2019)

(단위 : 백만 텡게,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농업 전체	3,307,009.6	3,684,393.2	4,070,916.8	4,474,088.1	5,151,163.0	15.1	11.7
농산물	1,825,236.7	2,047,580.8	2,249,166.9	2,411,486.7	2,817,660.6	16.8	11.5
축산물	1,469,923.1	1,621,541.4	1,810,914.1	2,050,455.8	2,319,496.7	13.1	12.1

*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ommittee on Statistics)

■ 주요 생산 작물 곡물(밀)과 두류, 채소류, 감자, 유지류 등

- 2019년 곡물 및 두류 생산량 1,742만 8,600톤 중 밀 생산량 1,145만 1,600톤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뒤이어 보리, 옥수수, 귀리 순
 - 밀에 편중된 농업 생산량을 분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17~2021년 농업발전국가프로그램’을 통해 세제 및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업발전을 이루고자 함
- 채소류 생산량 435만 5,200톤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5.1%의 꾸준한 성장률 기록
- 감자 생산량 391만 2,100톤, 유지류 258만 3,700톤으로 집계, 이 중 아마씨 생산량 연평균 19.7%의 높은 성장세로 2019년 100만 7,200톤의 생산량 기록

카자흐스탄 주요 농산물 생산량(2015~2019)

(단위 : 천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곡물 및 두류	18,672.8	20,634.4	20,585.1	20,273.7	17,428.6	△14.0	△1.7
밀	13,747.0	14,985.4	14,802.9	13,944.1	11,451.6	△17.9	△4.5
보리	2,675.4	3,231.3	3,305.2	3,971.6	3,830.1	△3.6	9.4
옥수수	734.1	762.4	784.7	862.0	896.0	3.9	5.1
귀리	243.8	335.4	284.6	336.1	267.0	△20.6	2.3
채소류	3,564.9	3,795.2	3,791.1	4,081.9	4,355.2	6.7	5.1
감자	3,521.0	3,545.7	3,551.1	3,807.0	3,912.1	2.8	2.7
유지류	1,547.5	1,902.4	2,359.3	2,693.6	2,583.7	△4.1	13.7
아마씨	491.4	561.8	683.3	933.5	1,007.2	7.9	19.7
해바라기씨	534.0	754.9	902.6	847.7	838.7	△1.1	11.9
박류	2,087.6	2,070.9	2,094.0	2,142.5	2,382.1	11.2	3.4
사탕무	174.1	345.0	463.2	504.5	485.5	△3.8	29.2

*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농림수산업 통계모음집」

■ 2019년 육류 생산량 112만 600톤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 우육(44.7%), 계육(19.9%), 양·염소(15.3%), 말(11.8%), 돈육(7.7%) 순

- 우육 생산량 전년 대비 5.0% 증가한 50만 1,300톤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계육 22만 2,700톤(15.9% ↑), 양·염소고기 17만 1,400톤(0.5% ↑), 말고기 13만 2,000톤(4.3% ↑)순이며, 돈육 8만 6,4700톤(0.3% ↑)으로 가장 적은 비중 차지
- 우유 생산량 586만 4,900톤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반면, 달걀 생산량 전년 대비 1.1% 감소한 55억 3,140만 개로 집계

카자흐스탄 축산물 부류별 생산량(2015~2019)

단위 : 천 톤, 백만 개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육류	전체	931.0	960.7	1,017.6	1,059.4	1,120.6	5.8	4.7
	소	416.8	430.6	450.4	477.4	501.3	5.0	4.7
	닭	146.1	152.7	179.6	192.2	222.7	15.9	11.1
	양·염소	165.1	169.2	171.4	170.6	171.4	0.5	0.9
	말	101.5	107.8	117.5	126.5	132	4.3	6.8
	돼지	95.3	93.9	91.9	86.1	86.4	0.3	△2.4
우유	5,182.4	5,341.6	5,503.4	5,686.2	5,864.9	3.1	3.1	
달걀 (백만 개)	4,737.0	4,757.2	5,103.0	5,591.4	5,531.4	△1.1	4.0	

*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농림수산업 통계모음집」

2 수출입 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19년 농식품 수출액 전년 대비 6.4% 증가한 26억 456만 9,000달러(한화 약 2조 9,005억 원)로 집계
 - 우즈베키스탄(29.2%), 중국(13.8%), 아프가니스탄(12.3%) 등으로 주로 수출
 -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7억 6,118만 8,000달러(한화 약 8,631억 8,719만 원)로, 2015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0.9% 기록
 - 중국으로는 3억 5,966만 6,000달러(한화 약 4,077억 8,931만 원) 수출하며 전년 대비 57.1% 증가
 - 對아프가니스탄 수출액은 2018년 대비 20.7% 감소한 3억 2,005만 4,000달러(한화 약 3,628억 7,722만 원)로 집계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1,738,719	1,659,004	1,878,492	2,447,537	2,604,569	100.0	6.4	10.6
1 우즈베키스탄	504,026	430,139	474,242	635,628	761,188	29.2	19.8	10.9
2 중국	103,548	126,140	162,837	228,938	359,686	13.8	57.1	36.5
3 아프가니스탄	273,880	408,358	425,058	403,721	320,054	12.3	△20.7	4.0
4 이란	150,981	148,619	169,880	330,682	297,531	11.4	△10.0	18.5
5 타지키스탄	269,410	228,833	241,946	234,559	280,433	10.8	19.6	1.0
6 터키	22,503	46,414	79,301	111,643	99,273	3.8	△11.1	44.9
7 벨기에	47,292	37,294	47,932	62,538	94,981	3.6	51.9	19.0
8 투르크메니스탄	45,415	30,090	27,994	67,943	73,170	2.8	7.7	12.7
9 아제르바이잔	21,844	11,055	17,087	60,252	56,429	2.2	△6.3	26.8
10 몽골	41,672	41,318	62,920	65,796	55,612	2.1	△15.5	7.5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밀과 메슬린(32.6%)을 포함한 곡류, 종자류를 주로 수출하고 있음
 - 수출 1위 품목인 '기타 밀과 메슬린' 수출액은 8억 4,842만 1,000달러(한화 약 9,619억 3,972만 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함
 - 뒤이어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를 전년 대비 22.1% 감소한 3억 3,660만 3,000달러(한화 약 3,816억 4,048만 원) 수출하였고 '기타 보리'도 2억 8,814만 6,000달러(한화 약 3,266억 9,993만 원)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
 - 이 외에도 아마씨, 해바라기씨 등 종자류가 주력 수출 품목에 해당하며 조유 역시 수출 상위 8, 9위에 위치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1,738,719	1,659,004	1,878,492	2,447,537	2,604,569	100.0	6.4	10.6
1 기타 밀과 메슬린	558,466	521,036	514,243	801,479	848,421	32.6	5.9	11.0
2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	485,905	493,708	459,584	432,028	336,603	12.9	△22.1	△8.8
3 기타 보리(종자 제외)	103,558	102,346	135,011	287,850	288,146	11.1	0.1	29.2
4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12,235	88,723	104,523	138,735	168,256	6.5	21.3	10.7
5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48,955	51,251	83,120	90,363	154,154	5.9	70.6	33.2
6 기타 밀과 메슬린 [듀럼종 밀]	37,149	61,909	84,671	102,258	83,053	3.2	△18.8	22.3
7 렌즈콩(건조)	4,412	34,001	46,455	52,256	49,546	1.9	△5.2	83.1
8 조유(粗油)[해바라기씨유 · 잇꽃유와 그 분획물]	8,637	13,181	26,994	38,448	49,152	1.9	27.8	54.5
9 조유(粗油)[저에루크산 (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5,412	4,462	6,605	18,150	44,058	1.7	142.7	68.9
10 기타 유채(rape, colza) 씨(부수었는지에 상관 없다)	7,848	1,602	7,064	6,512	24,616	0.9	278.0	33.1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19년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7억 1,026만 4,000달러(한화 약 1조 9,394억 3,937만 원)로 집계

- 우즈베키스탄(17.0%), 미국(10.4%), 중국(9.9%), 우크라이나(9.7%), 폴란드(4.2%) 등에서 주로 수입
 - 우즈베키스탄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29.7% 감소한 2억 9,062만 4,000달러(한화 약 3,295억 6,761만 원)로 집계
 - 미국산 수입액은 1억 7,790만 달러(한화 약 2,017억 3,860만 원)로 전년 대비 20.5% 증가하였으며 중국산 수입 역시 1억 6,871만 9,000달러(한화 약 1,913억 2,734만 원)로 전년 대비 12.1% 증가
 - 우크라이나산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1억 6,543만 2,000달러(한화 약 1,875억 9,988만 원) 수입한 반면 폴란드산은 16.7% 증가한 7,237만 3,000달러(한화 약 820억 7,098만 원) 수입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1,944,191	1,672,045	1,772,826	1,816,244	1,710,264	100.0	△5.8	△3.2
1 우즈베키스탄	299,814	319,235	341,718	413,405	290,624	17.0	△29.7	△0.8
2 미국	127,814	109,320	122,650	147,611	177,900	10.4	20.5	8.6
3 중국	208,458	128,302	155,481	150,459	168,719	9.9	12.1	△5.2
4 우크라이나	243,113	185,977	192,391	170,454	165,432	9.7	△2.9	△9.2
5 폴란드	86,523	68,341	78,943	62,037	72,373	4.2	16.7	△4.4
6 케냐	44,280	46,874	51,282	52,542	51,435	3.0	△2.1	3.8
7 프랑스	37,997	34,077	46,387	49,169	49,797	2.9	1.3	7.0
8 독일	58,866	47,756	57,895	62,493	48,049	2.8	△23.1	△4.9
9 브라질	83,339	143,921	96,504	52,759	47,473	2.8	△10.0	△13.1
10 이탈리아	33,839	31,684	45,665	56,080	46,053	2.7	△17.9	8.0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절단육과 설육’ 수입액은 전년 대비 38.3% 증가한 1억 3,110만 2,000달러(한화 약 1,486억 6,966만 원)를 기록하며 7.7%로 가장 큰 수입 비중을 차지
 - 뒤이어 ‘기타 조제 식료품’ 수입액은 8,509만 6,000달러(한화 약 965억 1,588만 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8.8% 증가
 - 그 밖의 ‘홍차와 부분 발효차’ 수입액은 8,257만 6,000달러(한화 약 936억 5,769만 원)로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으며, ‘신선 포도’ 수입액 또한 6,491만 9,000달러(한화 약 736억 3,112만 원)로 전년 대비 2.8% 감소
 - ‘신선 사과’ 수입액은 전년 대비 37.7% 증가한 6,088만 2,000달러(한화 약 690억 5,236만 원)로 집계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1,944,191	1,672,045	1,772,826	1,816,244	1,710,264	100.0	△5.8	△3.2
1 절단육과 설육(냉동)	102,247	93,665	90,545	94,810	131,102	7.7	38.3	6.4
2 기타 조제 식료품	68,371	50,354	59,191	66,056	85,096	5.0	28.8	5.6
3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88,430	87,568	92,881	84,245	82,576	4.8	△2.0	△1.7
4 포도(신선)	67,870	58,196	68,878	66,798	64,919	3.8	△2.8	△1.1
5 사과(신선)	61,231	41,617	50,801	44,224	60,882	3.6	37.7	△0.1
6 복숭아	37,443	25,281	26,340	30,168	45,257	2.6	50.0	4.9
7 그 밖의 사탕수수당	77,498	144,591	112,932	59,528	43,088	2.5	△27.6	△13.6
8 토마토(신선)	69,432	41,924	55,824	44,973	38,963	2.3	△13.4	△13.4
9 기타 마가린	8,894	7,874	6,185	5,284	32,016	1.9	505.9	37.7
10 장미(절화)	14,540	15,315	20,473	24,491	29,239	1.7	19.4	19.1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나.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농식품 수출현황

■ 2019년 對카자흐스탄 한국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2.9% 감소한 2,698만 3,300달러(한화 약 305억 9,906만 원)로 집계

- 양파 종자를 제외하고 커피크리머, 라면, 기타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등 가공식품을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음
 - 커피크리머 수출액이 5,210만 달러(한화 약 590억 8,140만 원)로 집계되며 전체 수출액의 19.3% 비중 차지
 -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8% 증가한 383만 8,600달러(한화 약 42억 7,582만 원)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2.2%를 기록하며 수출 호조세
 - 가공식품을 제외한 품목 중 양파 종자 수출액이 245만 달러(한화 약 27억 7,830만 원)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타 조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244만 5,400달러(한화 약 27억 7,259만 원), 베이커리 제품 수출액은 5.5% 증가한 137만 1,500달러(한화 약 15억 5,500만 원)로 집계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농식품 수출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49,029.8	34,138.6	32,848.1	34,990.4	26,983.3	△22.9	△13.9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對카자흐스탄 수출 상위 5개 품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49,029.8	34,138.6	32,848.1	34,990.4	26,983.3	100.0	△22.9	△13.9
1 커피크리머	5,999.9	4,145.4	5,567.9	6,750.4	5,210.0	19.3	△22.8	△3.5
2 라면	2,418.0	1,690.0	2,630.0	3,151.8	3,838.6	14.2	21.8	12.2
3 양파 종자	200.0	80.5	2,100.0	2,430.2	2,450.0	9.1	0.8	87.1
4 기타 조제품	2,021.6	2,548.0	3,196.0	2,586.5	2,445.4	9.1	△5.5	4.9
5 베이커리 제품	572.2	506.2	813.2	1,299.6	1,371.5	5.1	5.5	24.4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농식품 시장 현황

1 시장 개요

가. 시장규모 및 특성

- 2018년 식품 시장규모 13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5조 1,782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2.7% 증가
 - 2014년 16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9조 12억 원)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5.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014년 수준 대비 회복세는 미약한 편

카자흐스탄 식품 시장규모(2014~2018)

(단위 : 백만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년비 ('17/'18)	연평균 ('14/'18)
16,750	15,090	11,610	13,030	13,380	2.7	△5.5

* 주 : 2018년 시장규모가 가장 최신자료임

* 출처 : BMI Research

- 1인당 신선식품 소비량 중 낙농품 소비량이 252.6kg으로 가장 높으며 뒤이어 난류 145.2kg, 육류 78.8kg 순으로 집계
 - 과일류 소비량은 1인당 77.3kg으로 집계되었으며 감자를 제외한 채소류 소비량은 61.6kg으로 나타남
 - 1인당 연간 감자 소비량은 36.4kg으로 나타났으며 유지류 소비량은 17.0kg으로 집계

- 가공식품 중에서는 베이커리 제품 및 곡물가공품의 1인당 소비량이 102.3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1인당 연간 잼, 꿀 및 당류 소비량은 31.8kg으로 집계

1인당 식품 소비량(2015~2019)

(단위 : kg)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선식품	낙농품	233.6	235.5	237.7	261.3	252.6
	난류	164.0	164.7	168.5	193.3	145.2
	육류	73.6	72.9	72.9	77.9	78.8
	과일류	64.4	61.4	64.6	74.9	77.3
	채소류(감자 제외)	90.2	89.3	88.5	94.1	61.6
	감자	48.5	48.6	46.9	48.6	36.4
	유지류	19.3	19.5	19.5	19.2	17.0
가공식품	베이커리 제품 및 곡물가공품	129.8	130.7	133.7	138.5	102.3
	잼, 꿀 및 당류	41.9	40.7	41.3	46.3	31.8

*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ommittee on Statistics)

나. 소비인구 및 특성

■ 2020년 인구 수 1,909만 1,949명, 중위연령 31.6세로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은 편

- 5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이 81.33%로 평균 인구 연령이 낮은 편에 속함
 - 25세~54세의 청장년층 비중 42.23%로 가장 높으며, 14세 미만 26.13%, 15세~24세 12.97% 차지,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 8.43%에 불과
- 남성 47.6%(908만 4,551명), 여성 52.4%(1,000만 7,398명)의 성비 분포를 보임
 - 2019년 여성의 노동 참여율 62.7%로 전 세계 평균 52.0%보다 높은 편

■ 2019년 1인당 가구소득은 3,273달러(한화 약 371만 원)로 전년도 3,242달러(한화 약 368만 원)와 유사한 수준(1.0% 증가)

- 1인당 연간 가계지출은 2019년 12월 1,624달러(한화 약 184만 원)로 전년 동월 1,268달러(한화 약 144만 원) 대비 28.1% 증가

■ 2019년 기준 전체 가계 소비의 15%가 육류 및 육가공품 차지

- 과거 유목생활의 영향으로 육식 위주의 식습관 보유, 소, 돼지, 염소, 양, 말, 사슴, 닭, 오리, 야생들새, 낙타 등 다양한 가금류 및 가축을 육류로 섭취함
- 2019년 기준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 18.7kg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는데, 이는 물가 상승으로 육류 가격이 증가해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육류를 제외하고 식품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유제품으로, 2017년 기준 전체 식품 소비량에서 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나타남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 환경 변화

가. 주요 트렌드

■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식품 수요가 높아짐

- 무설탕 식품, 건강한 간편조리 식품, 다류 등의 식품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전통적으로 차(茶)를 즐겨 마시는 문화권이었으나,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차 소비량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임
 - 카자흐스탄 소비자의 54%는 더욱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고자 하며, 45%는 균형잡힌 식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함
 - 또한 소비자의 52%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고자 함
- 통곡물, 글루텐프리 등 밀가루 대체품이나 이를 활용한 간식류에 주목
 - 건강한 식품 소비 욕구가 증대되며 글루텐이나 GMO 등 건강에 유해한 성분 섭취를 지양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전문가들은 바나나 또는 채소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
- 팜유 외 새로운 유지류가 각광 받는 추세로, 캐슈넛, 민달, 땅콩 등으로 추출한 오일 소비가 유형
 - 팜유는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포화지방산이 많아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지류 제조업체들은 팜유를 견과류에서 추출한 오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2020년 카자흐스탄의 한 유지류 생산업체는 수박 씨앗을 활용해 기름을 추출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 증가, 새로운 유형과 브랜드의 식료품에 대한 개방적 소비 패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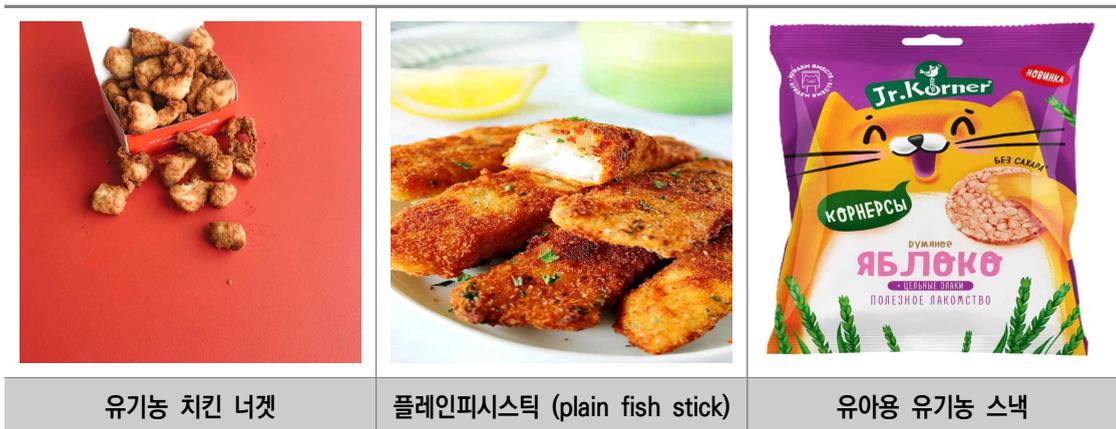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소비자의 약 33%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함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에 제한이 발생하면서 기존 소비하던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접근성 약화,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로 새로운 유형의 식품을 시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
 - 카자흐스탄 소비자의 48%는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소비하지 않던 새로운 유형 또는 브랜드의 식품을 구입함

나. 이슈품목

■ 건강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도 높아져 유기농 식품에 주목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건강한 식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 확대 추세, 소비자의 소득 증가와 쇼핑 인프라 발달로 다양한 유형의 유기농 식품에 대한 접근성 높아짐
- 유기농 식품은 기존 신선 농산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점차 가공식품이나 조리 식품으로 확대됨

다양한 유형의 유기농 식품



* 출처 : www.satu.kz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 및 건강을 위한 친환경 식품 소비 증가세

- 코코넛, 호박씨, 견과류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유지류로 제조된 오일이 팜유 소비 대체
- 원재료 외에도 포장 및 유통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식품의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친환경 포장재로 제품을 리뉴얼하는 사례 발생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식품

		
<p>코코넛 오일</p>	<p>호박 오일 "Radograd"</p>	<p>친환경 패키지의 RTD</p>

* 출처 : www.satu.kz, informburo.kz

3 농식품 관련 정책동향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7-2021 농업발전 국가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국가 농업발전에 대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7년 카자흐스탄 농업부가 국산 농산물의 시장 공급, 수출 경쟁력 강화, 수자원 사용의 효율화,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을 2021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2017-2021 농업발전 국가프로그램》을 채택함
 - 본 프로그램은 농식품에 대해 세제 및 관세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투자자에게는 법인세 및 토지세를 면제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 특히 쌀, 밀 생산에 관한 프로그램이 지원범위에 포함되며 향후 5년 동안 120억 달러(한화 약 13조 2,612억 원)규모의 농기업 투자를 유치함
 - 온실 및 스마트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온실기자재 및 기계류를 무관세로 수입하는 등 농업 발전을 도모함
 - 카자흐스탄 온실협회에 따르면, 국내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약 1150헥타르의 온실 시설이 필요함

카자흐스탄 농업발전 국가 프로그램

종류	농업분야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
세제 혜택	10년간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 0% 적용
관세 혜택	수입 관세 0%(관련 부품, 자재, 원료 등)
기타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가능

* 출처 :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농산품 품목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를 실시함

- 카자흐스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국내 식량 부족 사태 방지 위해 2개월간(4월~5월) 메밀, 백설탕, 감자, 양파, 마늘, 씨앗, 해바라기 기름 등 일부 농산품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이후 수출쿼터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수출쿼터제는 밀은 200,000톤, 밀가루는 70,000톤으로 제한함
 - 이에 해당 기간 동안 밀 수출액이 약 1억 5,000달러(한화 약 1,104억 7,552만 3,500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농식품 유통 현황

1 유통 현황 및 특징

- 오프라인 유통채널 비중 99.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온라인 유통채널 0.5%에 불과
 - 2019년 오프라인 식품시장 규모 5조 4,610억 텡게(한화 약 14조 4,717억 원)로 전년 대비 11.1%, 최근 5년간 연평균 12.6% 증가
 - 현대식 유통채널 비중 36.7% 수준이나 최근 연평균 3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
 - 슈퍼마켓(23.9%)과 하이퍼마켓(10.3%)의 비중이 두드러지며 두 채널 모두 최근 5년간 꾸준히 성장하였고, 편의점(0.4%)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7% 증가함
 - 전통식 유통채널 비중 63.3%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2%, 전년 대비 2.1% 성장

카자흐스탄 오프라인 식품시장 규모(2015~2019)

(단위 : 10억 텡게,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합계	3,395.2	3,989.4	4,412.9	4,916.5	5,461.0	100.0	11.1	12.6
현대식 유통채널	675.8	823.7	1,112.6	1,530.4	2,005.2	36.7	31.0	31.2
- 편의점	0.0	0.0	4.9	14.9	23.8	0.4	59.7	-
- 포코트 리테일러 ¹⁾	41.1	51.3	66.9	91.2	117.0	2.1	28.3	29.9
- 하이퍼마켓 ²⁾	219.3	280.6	339.3	441.0	561.6	10.3	27.3	26.5
- 슈퍼마켓	415.4	491.8	701.5	983.3	1,302.8	23.9	32.5	33.1
전통식 유통채널	2,719.4	3,165.7	3,300.3	3,386.1	3,455.8	63.3	2.1	6.2

* 주1 : 포코트 리테일러(Forecourt Retailer): 주유소 내 위치한 소규모 매점

* 주2 : 하이퍼마켓(Hypermarket): 슈퍼마켓·대형 할인점·백화점의 형태가 결합된 대규모 소매 점포

* 출처 : Euromonitor

- 온라인 유통채널 매출액 전년 대비 28.7% 증가한 121억 텡게(한화 약 321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2.9%의 성장률 기록

카자흐스탄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2015~2019)

(단위 : 10억 텡게,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자상거래	5.3	5.9	7.4	9.4	12.1	28.7	22.9

* 출처 : Euromonitor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가. 오프라인 유통채널

- 현대식 유통채널의 수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2,606개, 전체 매출액은 2조 52억 텡게(한화 약 5조 3,138만 원)로 집계
 - 백화점의 매출액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으나, 주요 도시를 위주로 대규모 백화점과 쇼핑몰이 입점되어 있음

매장명	TsUM (The Butya holding company)	Khan Shatyr (Khan Shatyr)	MEGA Silk Way (Chapman Taylor)
매장사진			
설립연도	1961년	2010년	2017년
홈페이지	tsum.kz	khanshatyr.com	mega.kz

* 출처 : alamy.es

- 슈퍼마켓의 식품 매출액 1조 3,028억 텡게(한화 약 3조 4,524억 원)로 전체 유통채널의 23.9% 차지

매장명	Anvar (Anvar TOO)	Magnum (Magnum Cash&Carry TOO)	Ideal (Ideal Market TOO)	SMall (Skif Sauda TOO)	Metro (Metro Group)
매장사진					
설립연도	1993년	2007년	2005년	1997년	2008년
매장수	37개	45개	40개	52개	-
홈페이지	anvar.kz	magnum.kz	www.idealmarket.kz	small.kz	metro.com.kz

* 출처 : 해당 홈페이지, kursiv.kz, yandex.com, 2gis.kz, yandex.ru

- 포코트 리테일러는 주유소에 입점한 소규모 현대식 유통채널로, 2019년 식품 매출액은 1,170억 텡게(한화 약 3,101억 원)로 집계

매장명	KazMunaiGas (KazMunaiGaz Onimderi AO)	Helios (Helios TOO)	Aurika (Aurika TOO)	Sinooil (Sinooil TOO)	Gazprom Neft (Gazprom Neft Kazakhstan TOO)
매장사진					
설립연도	2002년	1999년	1993년	2007년	1995년
매장수	404개	274개	171개	122개	82개
홈페이지	kmgep.kz	helios.kz	aurika.kz	www.sinooil.kz	www.gazprom-neft.com

* 출처 : 해당 홈페이지, yandex.com, oskemen.info

■ 전통식 유통채널의 수는 집계되지 않으며 매출액은 3조 4,558억 텡게(한화 약 9조 1,579억 원)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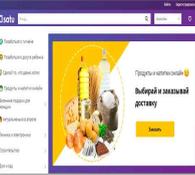
- 전통 재래시장인 Bazaar는 지역 문화의 일부로 고객과의 친분 형성으로 매출액을 확보하고 있으나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매출 감소가 전망됨
 - 전통적 유통채널은 쾌적한 매장 인테리어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존재하며,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현대식 유통채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
 - 알마티를 시범 도시로 하여 식품의 보관, 위생관리 및 쇼핑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바자회 현대화 프로그램이 추진 중

매장명	Green Bazaar, Almaty	Ayna Bazaar, Shymkent
매장사진		

* 출처 : flickr.com, allenfotowild.com

나. 온라인 유통채널

-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자 증가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5년까지 약 2조 텡게(한화 약 5조 6,643억 원)로 증가하며 전체 유통의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오프라인 소매업체는 매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옴니채널을 구축하는 추세로, 편의성을 내세운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이 예상됨
 - 온라인상 할부 결제 도입으로 소득이 낮은 고객의 온라인 쇼핑이 가능해지며 더 많은 사용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의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은 Flip, Wildberries, SATU 등이 있음
 - Flip은 약 40만 여개의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식품 부문의 경우 스낵, 소스, 차류, 향신료 등 가공식품 위주의 제품 구성을 보임
 - Wildberries는 러시아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카자흐스탄 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공식품 위주의 식료품을 판매함
 - SATU는 약 920만 개의 제품을 판매하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채소절임, 식료품, 견과류 등 가공식품을 중점으로 판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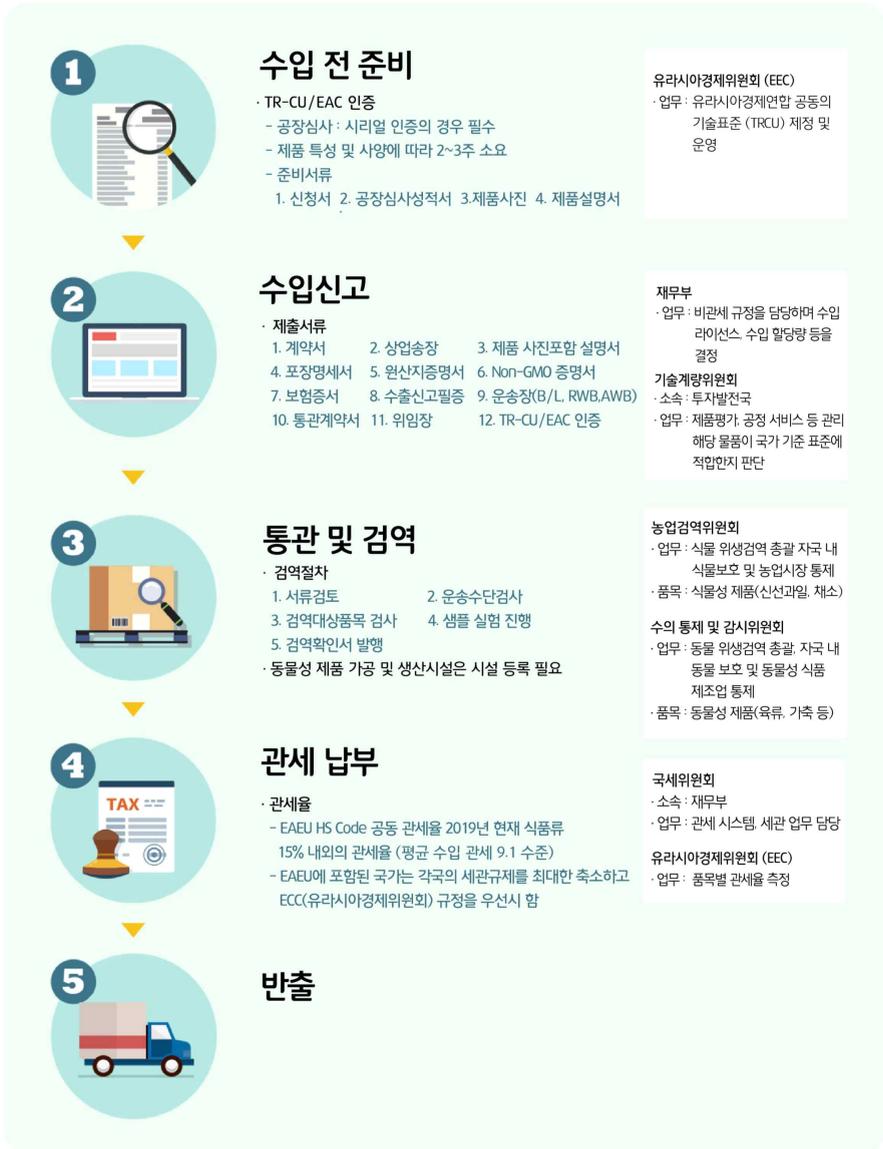
채널명	Flip	Wildberries	SATU	Ramstore (Anadolu Endustri Holding)	Alibaba (Alibaba Group Holding Ltd)
매장사진					
설립연도	-	-	-	2005년	1999년
홈페이지	www.flip.kz	www.wildberries.kz	satu.kz	online.ramstore.kz	alibaba.kz

* 출처 : 해당 업체 홈페이지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 수출 프로세스



2 수입제도

가. 통관제도

■ 카자흐스탄으로 수출 시 TR CU 인증 취득이 요구됨

- 곡물류, 채소 및 과일음료, 유지류,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등 식품안전 관련 규정(TP TC 021/2011)에서 정하는 품목이 해당됨

■ 세관 도착 전 미리 신고하거나 도착한 직후 수입신고

- 세관에 상품 또는 차량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세관 신고, 통관 승인은 1년간 유효
- 계약서, 상업송장, 사진이 첨부된 제품설명서,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원산지증명서, 세관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위임장, 검역증명서(요구 시) 등을 제출함

■ 품목에 따라 검역 및 검사가 실시됨

- 동물성 제품은 가공 및 생산하는 시설은 당국에 생산시설 등록
- 원산지증명서, TR CU 인증 적합성선언(DOC), 식물검역증명서, 수의검역증명서, Non-GMO 확인 서류 등 필요
- 수입업자가 식품검사를 신청하며 보건부 산하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검사결과 적합 시 검사증명서 발급하고 세관에 결과 통보

■ 관세납부 후 화물 반출 및 통관 완료

- 평균 수입관세는 약 9% 수준으로 부가세는 품목별로 공통 12% 적용, 소비세 및 통관비용은 품목에 따라 상이
- 수입식품이 부적합 판정된 경우 반송, 폐기, 재처리 등의 조치 취함

나. 검역제도

■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농식품은 품목에 따라 ①위생-전염병 검역 ②수의검역 ③식물검역이 요구됨

- 위생-전염병 검역(Sanitary-Epidemiological control)은 아래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카자흐스탄의 품질 및 안전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및 연방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을 제출해야 함
 - 국가등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는 제품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위생규정을 따른다는 확인서로 2010년 6월 1일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국가별 위생증명서(Hygienic Certificate)를 통합·대체함
 - TR CU 021/2011 식품안전규정(2011.12.9.)에 따라 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 생산하는 시설은 국가등록 필요

-
- 미네랄 워터(일반, 치료용 모두)
 - 어린이용 식품(모유 대용품, 시리얼, 우유,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으로 제조된 제품, 유아용 식품, 유아용 허브차, 임산부 및 모유를 먹이는 여성용 식품 등 포함)
 - 식이요법 제품
 - 유제품
 - 육류 및 육가공품(영양이 첨가된 제품 포함)
 - 식품첨가물
 -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물
 - 유전자 변형으로 제조된 식품
 - 신기술로 제조된 식품(식품 원자재 포함)
-

- 육류 및 육가공품, 우유 및 유제품, 동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 동물 사료 및 의약품 등은 수의 검역 대상에 해당
 - 유라시아경제연합 수의 위생 조치의 적용에 대한 관세동맹 위원회 결정 317호 (2010.6.18.)에서 수의규제 대상 품목을 규정

- 산 동물(농업용, 가정용, 야생, 동물원, 바다, 상업용 모피, 서커스, 실험용 등을 포함한 모든 동물), 산 새 (가정용, 야생, 장식용 등을 포함한 모든 새)
- 모든 종류의 육류 및 육류제품 : 가금류 포함
- 우유 및 유제품
- 조란 제품
- 동물을 원료로 하는 물질
- 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물 : 애완동물 식품 포함

- 검역대상 품목의 관세동맹 영토 내로의 반입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반입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허가는 연간 반입물량을 정함
- 관세동맹 영토 내로 반입되는 검역대상 물품은 반입 시마다 반입허가서와 수출국의 권한 기관에서 발급한 수의 위생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제출 필요
- 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는 국경 통과소에서 서류검토와 컨테이너 검사로 진행하며, 국경 통과소 통과 물품은 목적지에서 완전한 수의 위생 관리가 이루어짐
- 카자흐스탄은 수출국의 수출식물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 국내 검역 후 수출된 식품은 카자흐스탄의 식물위생검역소 및 차량 국경 교차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통합 검역 식물 위생 요건에 따라 검역 진행
 - 검역 규제 품목은 식물위생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 대부분의 구근, 산 식물, 신선 화훼·채소·과일 종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건조 및 반가공된 농산물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됨
 -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물 검역 후 검사 합격증(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발급받아 카자흐스탄 세관 당국에 사전 제출해야 함
 - 검역은 서류검토, 운송 수단 검사, 검역 대상 품목 검사로 진행되며, 수출국의 식물위생 특성에 따라 필요 시 샘플링, 실험실 테스트 진행
 -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식품은 식물위생검역소에서 검역 후 통과 시 검역확인서(Act of quarantine phytosanitary control) 발행

■ 공식적으로 對카자흐스탄 수출 가능 여부가 확인된 농산물은 사과, 배, 감자, 양배추 종자가 유일⁵⁾

5)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다. 라벨링 규정

■ 카자흐스탄의 식품 라벨링은 식품 라벨링 기술 규정(TR TS 022/2011)을 따름

- 라벨은 러시아어와 카자흐스탄어 두 가지 언어로 모두 표기되어야 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 표기 필요
- 라벨링은 반드시 제품명, 원산지, 생산자를 포함해야 하며, 식품의 경우 제조일자, 유통기한, 보관 및 취급 방법에 관한 설명, 영양 성분을 표기해야 함

■ 포장식품 라벨링 표기방법

구 분	필수/선택	내 용
1) 제품명	필수	제품의 원료와 관계가 있고 제품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며 다른 식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수가공(훈제, 절임, 분쇄, 동결건조 등)한 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당 정보를 제품명에 포함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 식품에 향미증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맛(with the flavor of)', '~ 향(with the aroma of)'과 같이 표기하여 향미증진제가 포함되었음을 표시
2) 식품성분	필수	식품 성분 기재 시 질량의 비율에 따라 가장 많은 양부터 순서대로 기재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그 기능(산도조절, 유화제 등)과 명칭을 기재해야 함
3) 식품용량	일부 유형 생략 가능	식품용량은 용량(밀리리터, 센티리터, 리터), 중량(그램, 킬로그램) 또는 개수 단위로 표기하며, 약어로 표기 가능
4) 제조일자	필수	유통기한에 따라 제조일자 표기 제조일자는 생산일자(Production date) 또는 유사한 단어로 대체 가능
5) 유통기한	필수	유통기한이 72시간 미만인 경우 : 시간, 일, 월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일, 월, 연도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일, 월 연도 또는 월, 연도
6) 보관방법	필수	모든 특수한 보관 조건 또는 사용 조건을 표기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 설명서를 제공해야 함
7) 제조자/전권대표 /수입자	필수	제조업체의 공식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제 3국에서 제공되는 식품일 경우 수입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역시 기재해야 함
8) 권고사항/ 제한사항	필수	권고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섭취가 어렵거나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식품의 성분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 권고사항이나 제한 사항을 표기해야 함

구 분	필수/선택	내 용
9) 영양정보	필수	열량(칼로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양의 정보를 표기해야 함 식품 영양값은 100g, 100ml 또는 1인분 기준으로 표기해야 함
10) GMO 정보	일부 유형 필수	GMO 함유량이 0.9%이상인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물질에서 나온 식품', '유전자변형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
11) EAC 마크	필수	사각형의 형태로 밝거나 대조가 뚜렷한 배경에 3개의 철자 'E', 'A', 'C'를 합하여 'EAC'로 표기

- 일체 가공되지 않고 포장 없이 판매되는 신선 농식품의 경우 라벨링 규제 범위에서 제외되며, 축산물은 유라시아경제연합국가의 통합 식품 라벨링 기술 규정(TR TS 022/2011)에 따라 축산물 라벨링 적용

주요 품목 식품 표기사항 예시

	필수 표기내용
	① 제품명 : 도시락 :프리미엄 밀가루, 야자유, 변성 전분, 말린 양파 소금, 말린 다시마 (분말),
	② 식품성분 :글루텐, 증 점유 화제, 건조 야채, 양파, 건조 김 (플레이크), 간장 가루, 포도당, 고추, 후추, 마늘 가루
	③ 용량 : 70g
	④ 제조일자 : 2015년 04월 21일
	⑤ 유통기간 : 12개월
	⑥ 보관방법 : 상온보관
	⑦ 제조사 : Doshirak
	⑧ 권고사항 : 어린이 취급주의. 조리 시, 시식 시 국물이 뜨거우니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⑨ 영양정보 : 100g당 지방 16g, 단백질 9g, 탄수화물 66g
	⑩ EAC마크 : 있음

* 출처 : irecommend.ru

3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및 현황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카자흐스탄이 WTO에 발행한 TBT 통보문은 총 3건으로 집계되며, 이 중 식품 전반에 관한 건이 2건, 식품첨가물 대상 1건으로 나타남
 - 국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통보목적이 3건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 1건으로 집계됨

식품 부문 TBT 통보 품목 및 목적(2015~2019)

품목	건수	통보목적(중복집계)	건수
식품전반	2	소비자 보호	1
식품첨가물	1	국민 건강/안전 보호	3
계	3	계	4

* 출처 : WTO

- 카자흐스탄의 SPS 통보문은 총 48건으로, 축산물과 낙농품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축산물 및 낙농품을 대상으로 발행된 SPS 통보문은 40건, 식품 전반에 대한 통보문 6건으로 집계
 - 대부분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통보되었으나, 11건의 경우 특정국을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식품 부문 SPS 통보 품목 및 대상국가(2015~2019)

품목	건수	대상국가	
		전 세계	특정국
축산물, 낙농품	40	31	9
식품	6	4	2
기타(개 정액)	2	2	0
계	48	37	11

* 출처 : WTO

- 한국산 농식품을 대상으로 발행된 SPS 통보문은 1건으로,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한국산 돈육 제품에 대한 규정을 제시함

한국산 농식품 대상 SPS 통보문(2015~2019)

구분	일자	품목	통보목적
축산물	2019-11-07	돈육 제품	식품 안전, 국민 건강

* 출처 : WTO

우즈베키스탄 . . .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77
1. 농업 현황	
2. 수출입 현황	
II. 농식품 시장 현황	87
1. 시장 개요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 환경 변화	
3. 농식품 관련 정책동향	
III. 농식품 유통 현황	94
1. 유통 현황 및 특징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99
1. 수출 프로세스	
2. 수입제도	
3.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및 현황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1 농업 현황

가. 농업규모

- 2019년 농업규모 511조 8,881억 숨(한화 약 56조 3,077억 원)으로, 연평균 19.2%의 높은 증가율 기록
 - 전체 가운데 농업 GDP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2.5%p 하락한 25.5%로, 연평균 4.6%의 감소세를 보임

우즈베키스탄 농업 부문 국내총생산액(GDP) 및 비중(2015~2019)

(단위 : 십억 숨,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GDP ¹⁾	전체	210,183.1	242,495.5	302,536.8	406,648.5	511,838.1	25.9	24.9
	농업 ²⁾	64,680.3	74,779.0	90,983.9	113,660.7	130,599.9	14.9	19.2
	비중	30.8	30.8	30.1	28.0	25.5	△8.7	△4.6

* 주1 : 당해년가격 기준 GDP

* 주2 : 농축임수산업 포함

* 출처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 농업 고용인구 355만 3,400명, 전체 고용인구의 26.4% 차지하나 전체 고용시장에서 농업 종사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농업 고용인구(2015~2019)

(단위 : 천 명, %)

구분	2015	2016	2017 ²⁾	2018 ²⁾	2019 ²⁾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고용인구	13,058.3	13,298.4	13,433.7	13,246.1	13,464.4	1.6	0.8
농업 ¹⁾ 고용인구 (비중)	3,601.7 (27.6)	3,646.7 (27.4)	3,641.4 (27.1)	3,574.8 (27.0)	3,553.4 (26.4)	△0.6	△0.3

* 주1 : 농축임수산업 포함

* 주2 : 평균치

* 출처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 농경지 면적은 330만 9,400ha로, 전체 국토 면적의 7.4%에 해당, 이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수준으로 연평균 2.7%씩 농지면적 감소세
 - 중앙아시아 중부에 위치해 건조한 사막성 기후가 나타나 대부분의 농사는 아랄해에 근접한 동부 지역에서 이뤄짐

우즈베키스탄 농지면적(2015~2019)

(단위 : 천 ha,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농경지 면적	3,694.2	3,706.7	3,474.5	3,396.0	3,309.4	△2.6	△2.7

* 출처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나. 주요 생산 품목 및 규모

■ 2019년 농업 생산액은 215조 6,276억 숨(한화 약 23조 7,19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성장세

- 농산물 108조 2,401억 숨(한화 약 11조 9,064억 원)의 생산액을 창출했고 전년 대비 10.0% 증가하며 최근 5년간 21.3%의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축산물의 생산액 또한 연평균 24.9% 증가하여 2019년 107조 4,325억 숨(한화 약 11조 8,176억 원)을 달성함

우즈베키스탄 농업 생산액(2015~2019)

(단위 : 십억 송,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생산액	99,604.6	115,599.2	148,199.3	187,425.6	215,672.6	15.1	21.3
농산물	55,429.2	61,755.1	83,303.4	98,406.4	108,240.1	10.0	18.2
축산물	44,175.4	53,844.1	64,895.9	89,019.2	107,432.5	20.7	24.9

* 주 : 매매가 기준(in actual price)

* 출처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 채소류와 곡물의 생산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감자 또한 활발하게 재배됨

- 2018년 채소류 생산량은 976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토마토가 228만 4,217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됨
 - 토마토의 뒤를 이어 당근, 박류, 양파 등 순으로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상위 4개 품목이 전체 채소류 생산의 약 80%를 차지함
- 곡물 생산량 총 653만 5,511톤, 이 중 밀이 541만 톤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생산 규모 전년 대비 11.0%, 연평균 6.1%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감자 생산량 291만 1,933톤으로 단일 세부 품목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임
- 과일류 생산량 270만 6,247톤 중 유핵과류가 138만 5,071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 과일류 품목 대부분에서 생산량 증가가 나타남

우즈베키스탄 주요 농산물 생산량(2014~2018)

(단위 : 톤)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곡물류	전체	8,050,546	8,173,480	8,261,286	7,288,522	6,535,511
	밀	6,955,975	6,964,664	6,934,876	6,079,164	5,410,760
	옥수수	411,630	439,551	491,919	389,427	413,165
	쌀	356,097	425,745	451,981	395,422	221,089
	보리	139,587	151,641	167,384	134,270	111,760
감자	2,399,228	2,586,849	2,789,476	2,793,689	2,911,933	
콩류	70,733	76,404	98,359	212,542	259,974	
견과류	74,099	87,306	99,413	111,001	85,682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지류	해바라기씨	46,488	50,132	53,839	27,331	26,672
	땅콩	6,380	7,170	9,342	25,587	19,302
	참깨	5,155	6,099	7,935	6,012	9,578
	홍화꽃씨	21,397	28,880	31,184	14,701	4,212
채소류	전체	8,753,887	9,390,040	10,184,023	10,219,914	9,760,323
	토마토	2,285,801	2,562,336	2,796,189	2,455,125	2,284,217
	당근	1,791,540	2,055,430	2,149,946	2,249,733	2,185,113
	박류	1,696,092	1,853,594	2,044,929	2,030,992	1,836,959
	양파	1,068,348	1,206,633	1,273,466	995,131	1,464,488
	오이	718,570	840,185	939,882	813,591	857,076
	양배추	1,003,673	952,623	1,093,974	904,488	743,411
	마늘	154,130	165,762	200,869	214,263	254,857
과일류	전체	2,306,498	2,467,940	2,612,865	2,614,916	2,706,247
	유핵과류 ¹⁾	1,212,087	1,329,497	1,441,566	1,286,221	1,385,071
	핵과류 ²⁾	1,059,704	1,173,247	1,324,651	1,060,647	1,052,130
	아열대 과일류 ³⁾	132,459	141,341	160,196	142,572	163,347
	감귤류	3,531	4,780	5,844	3,443	11,863
	베리류	8,747	9,940	11,168	11,032	8,145
포도	1,397,023	1,518,189	1,613,131	1,625,511	1,589,784	

* 주1 : seed fruit(사과, 배 등)

* 주2 : stone fruit(자두, 체리, 복숭아 등)

* 주3 : subtropical fruit(감, 무화과, 석류 등)

* 출처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 2018년 육류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243만 506톤 생산되었으며 우유, 달걀 및 꿀 생산량도 증가세

- 육류 가운데 우육 생산량이 182만 9,55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5년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뒤이어 양과 염소 고기 및 가금류 고기, 돼지고기 순으로 많이 생산됨
- 우유 생산량 1,046만 6,413톤, 달걀 742만 5,629톤, 꿀 1만 2,578톤으로 집계

우즈베키스탄 주요 축산물 생산량(2014~2018)

(단위 : 톤,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년비 (17/18)	연평균 (14/18)
육류	전체	1,906,286	2,033,389	2,172,485	2,286,771	2,430,506	6.3	6.3
	소고기	1,427,419	1,517,078	1,616,409	1,682,470	1,829,557	8.7	6.4
	양·염소 고기	363,582	386,825	415,924	430,970	409,432	△5.0	3.0
	가금류 고기	79,379	90,693	99,656	133,503	172,989	29.6	21.5
	돼지고기	21,649	22,508	23,835	23,873	3,558	△85.1	△36.3
	기타	14,257	16,285	16,661	15,955	14,970	△6.2	1.2
우유		8,431,612	9,027,799	9,703,441	10,047,860	10,466,413	4.2	5.6
달걀		4,929,891	5,514,897	6,126,266	6,299,663	7,425,629	17.9	10.8
꿀		8,751	10,156	12,050	11,738	12,578	7.2	9.5

* 출처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2 수출입 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19년 농식품 수출액 전년 대비 56.4% 증가한 2억 5,438만 6,000달러(한화 약 2,882억 9,565만 원)로 집계**
 - 아프가니스탄(45.7%)을 비롯한 러시아(15.9%), 타지키스탄(12.9%), 카자흐스탄(10.0%) 등으로 주로 수출
 - 對아프가니스탄 수출액은 전년 대비 36.6% 증가한 1억 1,634만 9,000달러(한화 약 1,318억 5,832만 원)로 집계되며 전체 수출액의 45.7% 차지
 - 러시아로의 수출액은 4,049만 5,000달러(한화 약 458억 9,298만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65.8% 증가
 - 對타지키스탄 수출액 3,270만 8,000달러(한화 약 370억 6,797만 원)로 전년 대비 441.9%로 급증
 - 對카자흐스탄 수출액은 전년 대비 42.4% 증가한 2,543만 8,000달러(한화 약 288억 2,888만 원)로 집계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7/'19)
전체	138,162	162,694	254,386	100.0	56.4	35.7
1 아프가니스탄	66,391	85,155	116,349	45.7	36.6	32.4
2 러시아	31,598	24,419	40,495	15.9	65.8	13.2
3 타지키스탄	5,854	6,036	32,708	12.9	441.9	136.4
4 카자흐스탄	18,695	17,858	25,438	10.0	42.4	16.6
5 키르기스스탄	6,131	9,194	13,432	5.3	46.1	48.0
6 이라크	1,172	5,040	6,219	2.4	23.4	130.4
7 투르크메니스탄	1,492	2,684	4,938	1.9	84.0	81.9
8 조지아	43	775	3,651	1.4	371.1	821.4
9 독일	732	2,019	1,753	0.7	△13.2	54.8
10 미국	1,121	1,185	1,342	0.5	13.2	9.4

* 출처 : ITC Trade Map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 수출액은 1억 457만 6,000달러(한화 약 1,185억 1,598만 원)로 집계되며 전체 수출액의 41.1% 비중을 차지
 - ‘기타 사과주스’ 수출액 전년 대비 162.1% 증가한 1,558만 3,000달러(한화 약 176억 6,021만 원)로 집계,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수출액 1,135만 6,000달러(한화 약 128억 6,975만 원)로 전년 대비 52.4%의 증가율 기록
 - ‘기타 조제 과일 및 견과류’ 681만 3,000달러(한화 약 77억 1,981만 원)로 전년 대비 15.2% 증가, 이 외 조제 완두(2.6%), 조유(2.6%), 초콜릿 및 코코아 조제품(2.5%) 등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7/'19)
전체	138,162	162,694	254,386	100.0	56.4	35.7
1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	46,394	70,085	104,576	41.1	49.2	50.1
2 기타 사과주스	8,097	5,946	15,583	6.1	162.1	38.7
3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5,031	7,453	11,356	4.5	52.4	50.2
4 기타 조제 과일 및 견과류	3,747	5,913	6,813	2.7	15.2	34.8
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완두	738	3,721	6,629	2.6	78.2	199.7
6 조유(粗油)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0	0	6,601	2.6	N/A	N/A
7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5,146	6,008	6,256	2.5	4.1	10.3
8 기타 포도주스	5,748	4,836	6,158	2.4	27.3	3.5
9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6,640	5,623	5,572	2.2	△0.9	△8.4
10 기타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0	0	5,188	2.0	N/A	N/A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

■ 2019년 농식품 수입액 전년 대비 13.7% 감소한 11억 9,866만 3,000달러(한화 약 1조 3,582억 504만 원)

-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산(37.2%), 카자흐스탄산(14.4%), 브라질산(7.7%) 순
 - 러시아산 농식품 수입액은 4억 4,538만 8,000달러(한화 약 5,046억 6,914만 원)로 전년 대비 21.1% 감소
 - 카자흐스탄산 수입액은 1억 7,281만 4,000달러(한화 약 1,958억 5,010만 원)로 전년 대비 18.7% 감소
 - 브라질산 수입액 9,273만 달러(한화 약 1,050억 9,090만 원)로 전년 대비 195.9% 증가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7/'19)
전체	892,980	1,054,269	1,198,663	100.0	13.7	15.9
1 러시아	232,541	367,934	445,388	37.2	21.1	38.4
2 카자흐스탄	143,036	212,672	172,814	14.4	△18.7	9.9
3 브라질	304,369	31,335	92,730	7.7	195.9	△44.8
4 멕시코	23	57	89,619	7.5	157,126.3	6,142.2
5 말레이시아	38,991	44,767	70,089	5.8	56.6	34.1
6 우크라이나	12,997	125,571	54,537	4.5	△56.6	104.8
7 라트비아	27,117	50,740	41,808	3.5	△17.6	24.2
8 프랑스	16,091	20,837	30,590	2.6	46.8	37.9
9 아일랜드	17,390	17,144	24,592	2.1	43.4	18.9
10 리투아니아	9,562	17,394	18,758	1.6	7.8	40.1

* 출처 : ITC Trade Map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당류, 유지류를 포함한 가공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함
 - '사탕수수당' 수입액은 1억 9,302만 3,000달러(한화 약 2,187억 5,296만 원)로 전년 대비 528.6% 증가하며 전체 농식품 수입액의 16.1% 차지
 - 뒤이어 '기타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수입액 1억 6,304만 2,000달러(한화 약 1,847억 7,549만 원)로 전년 대비 37.1% 증가
 - '오일 케이크 및 고체 유박'의 경우 전년 대비 6.1% 감소한 9,234만 1,000달러(한화 약 1,046억 6,852만 원),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는 20.3% 감소한 8,617만 1,000달러(한화 약 976억 7,482만 원)로 집계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7/'19)
전체	892,980	1,054,269	1,198,663	100.0	13.7	15.9
1 사탕수수당	304,165	30,707	193,023	16.1	528.6	△20.3
2 기타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91,167	118,879	163,042	13.6	37.1	33.7
3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	66,919	98,324	92,341	7.7	△6.1	17.5
4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	90,980	108,116	86,171	7.2	△20.3	△2.7
5 기타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26,002	304,882	72,631	6.1	△76.2	67.1
6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41,399	51,053	62,706	5.2	22.8	23.1
7 기타 조제 식료품	13,757	16,835	37,971	3.2	125.5	66.1
8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 (소매용 한정)	19,965	20,834	32,840	2.7	57.6	28.3
9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9,738	12,883	26,946	2.2	109.2	66.3
10 마가린(액상 마가린 제외)	15,086	17,119	20,870	1.7	21.9	11.4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

나.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농식품 수출현황

■ 2019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액은 588만 1,800달러(한화 약 66억 6,702만 원)로 전년 대비 79.2% 증가

- 수출 상위품목은 커피크리머(26.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라면(5.5%), 기타 조제품(4.0%), 옥수수전분(3.6%), 소스류(2.0%) 순으로 집계
 - 커피크리머는 전년 대비 386.1% 증가한 156만 4,300달러(한화 약 17억 7,313만 원) 수출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 18.4%로 수출 호조
 - 라면 수출액은 32만 2,100달러(한화 약 3억 6,510만 원)로 전년 대비 36.5% 증가
 - 기타 조제품은 23만 3,200달러(한화 약 2억 6,433만 원) 수출하며 전년 대비 1,33.9% 급증

- 옥수수전분(식품용) 수출액은 20만 9,000달러(한화 약 2억 3,690만 원)로 전년 대비 26.4% 감소한 반면 소스류 수출은 11만 7,100달러(한화 약 1억 3,273만 원) 수출하며 전년 대비 3.7% 증가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농식품 수출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3,587.8	3,699.3	2,958.8	3,283.1	5,881.8	79.2	13.2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상위 5개품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3,587.8	3,699.3	2,958.8	3,283.1	5,881.8	100.0	79.2	13.2
1 커피크리머	797.2	703.8	345.0	321.8	1,564.3	26.6	386.1	18.4
2 라면	350.8	159.0	235.5	235.9	322.1	5.5	36.5	△2.1
3 기타 조제품	26.7	11.7	98.5	18.9	233.2	4.0	1,133.9	71.9
4 옥수수전분(식품용)	186.2	320.1	364.7	284.0	209.0	3.6	△26.4	2.9
5 소스류	88.5	74.2	91.5	112.9	117.1	2.0	3.7	7.3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섬유판, 종자 등은 제외함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II

농식품 시장 현황

1 시장 개요

가. 시장규모 및 특성

- 2019년 우즈베키스탄의 식품 시장 규모는 69조 1,429억 슝(한화 약 75조 6,713억 원) 규모로 집계됨
 - 2015년 33억 7,572억 슝(한화 약 3,694억 3,879만 원)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19.6%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식품 소매시장 규모는 2012년 이후 연평균 23.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26.6%의 성장률을 기록함

식품 시장 규모(2015~2019)

(단위 : 십억 슝, %)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18/'19)	연평균('15/'19)
33,757.2	42,752.8	48,396.0	57,021.2	69,142.9	21.3	19.6

* 출처 : 우즈베키스탄 공공데이터포털(O'zbekiston Respublikasi ochiq ma'lumotlar portali)

- 2019년 채소류 및 곡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78.4kg으로 집계
 - 우유 및 유제품의 1인당 소비량은 272.4리터, 달걀 등 난류는 1인당 216.0kg 소비
 - 과일류는 1인당 148.8kg 소비하였으며 감자는 56.4kg의 소비량으로 집계됨

1인당 연간 식품 소비량(2016~2019)

(단위 : kg)

구분	2016	2017	2018	2019
채소류 및 곡류	277.2	277.0	278.0	278.4
우유 및 유제품(단위 : l)	279.6	270.0	272.0	272.4
난류	213.6	215.0	217.0	216.0
과일류	148.8	145.2	150.0	148.8
감자	56.4	55.2	56.0	56.4
육류 및 육류 제품	44.4	43.2	43.0	43.2
설탕 및 당류	32.4	31.0	32.0	33.6
식물성 유지류	24.0	24.0	24.0	24.0

* 주 : 2016년 이전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출처 : 우즈베키스탄 공공데이터포털(O'zbekiston Respublikasi ochiq ma'lumotlar portali)

나. 소비인구 및 특성

■ 2020년 인구 수 3,056만 5,411명, 중위연령 30.1세로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은 편

- 25~54세 연령층이 전체 인구 중 최대 비중(45.88%) 차지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연령층의 비중은 최소 수준(5.87%)
 - 25세 미만의 연령층의 비중은 39.82%로 집계됨
- 남성 인구 수는 1,520만 2,560명으로 전체 인구의 49.74%, 여성 인구 수는 1,536만 2,851명으로 50.26% 차지

■ 2019년 1인당 연평균 임금 9,772만 6,241숨(한화 약 1,075만 원), 가구소득 8,112만 8,975숨(한화 약 892만 원)으로 집계됨

-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여성 근로자보다 152.8%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억 1,590만 3,808숨(한화 약 1,275만 원)인 반면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583만 8,545숨(한화 약 504만 원)에 불과
-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9~44세로, 2억 5,841만 2,480숨(한화 약 2,843만 원)으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연령층인 16~21세의 연평균 임금보다 약 7.5배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소비액 중 식음료 부문의 지출이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외식이 매우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1인당 5달러(한화 약 5,850원)로 샐러드, 빵, 음료수, 메인 요리(플로브, 매티 만두, 샤슬릭 케밥)를 맛볼 수 있음
 -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1인당 약 10~15달러(한화 약 11,700~17,550원) 수준에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음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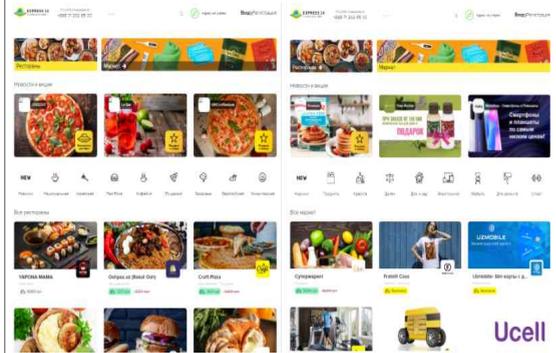
가. 주요 트렌드

- 코로나19 이후 전통적 유통채널의 방문률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현대식 유통채널 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이동 제한 및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전통 재래시장 방문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코로나 종식 이후 전통적 유통채널의 소비로 회귀할지 여부는 미지수
 - 최근 현대식 유통채널의 소매 현대화 추세와 더불어 대형 유통채널 및 슈퍼마켓 등의 매장 확대 계획으로 코로나 이후 현대식 유통채널로의 식품 소비 전환 가능성 존재
- 외출이 제한되자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 및 배달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
 - 대표적 배달 서비스 플랫폼인 Express24는 코로나19 이후 한식, 양식, 중식, 카페 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
 - Lebazar.uz, Arba.uz 등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대신 장바구니에 담아 집까지 배달해주는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식품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제고되며 비대면 결제 방식 도입
 - 대형 유통채널에서는 비대면 결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대형 유통채널인 Makro는 우즈베키스탄 최초로 고객이 직접 카드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셀프 계산대를 마련함

코로나19 이후 식품 유통환경 변화



우즈베키스탄 대형마트 내 무인 셀프계산대



Express24의 배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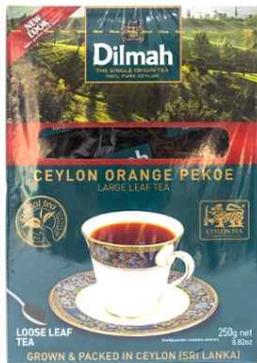
* 출처 : Makro.uz, express24.uz

우즈베키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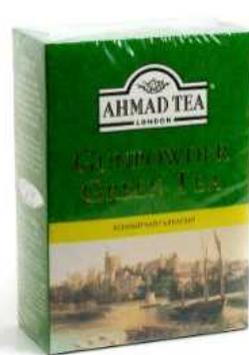
나. 이슈품목

- 음료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로,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보임
 - 전통적 차(茶) 소비국이나, 최근 인구증가와 기후변화, 해외문화 유입 등의 영향으로 과채음료,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커피 등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커피의 경우 젊은 사람이 많이 사는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의 수도)를 중심으로 소비가 확산되는 추세임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즐겨 먹는 차



Dilmah 홍차 티백



AHMAD 녹차 티백

* 출처 : www.lebazar.uz

■ 높은 출산율과 소득 수준의 증가로 영유아 식품 소비 증가 추세

-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출산율과 가계 소득의 증가로 영유아용 식품 시장 성장 예상
- 조제분유, 밀크와 크림, 영유아 및 어린이용 조제 식료품뿐만 아니라 영유아용 유기농 스낵류 등에 대한 수요 발생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통되는 영유아 식품

		
<p>Nutrilak (Infaprim JSC)</p>	<p>Fruto Nyanya (Progress JSC)</p>	<p>Bolajon (Namangan Bolajon Savdo)</p>

* 출처 : Gomart.uz, babymarket.uz, arba.uz

3 농식품 관련 정책동향

■ 2019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2030 우즈베키스탄 농업발전전략'을 발표함

- 해당 전략에서 우즈베키스탄 농업 발전을 위한 9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밝힘
 -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식량안보 보장, 농업환경 및 공급망 향상, 농업 투자매력도 향상,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 및 환경보호, 현대적 공공행정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농업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대각화, 농업 과학·교육·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시스템 개발, 농촌 개발, 산업통계시스템 개발 등의 내용을 제시함
- 특히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임
 - 주요 생산품목인 밀의 생산과 가공, 판매 과정에서의 정부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원재료 및 기술 자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국영 기업은 민영화될 예정
 - 2021년부터는 모든 작물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밀과 면화 등의 정부 조달을 폐지함
 - 이 외에도 농지 공급을 위한 공개 온라인 입찰을 도입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계획임

■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안보의 불안감이 증대되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농업 생산량 및 국가 식량 비축량을 증대하도록 지시함

- 2020년 4월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에서 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각 주별 주지사와의 관련 책임자에게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 밀 생산 할당량을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러한 지시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정부의 시장 재개입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농식품 유통 현황

1 유통 현황 및 특징

- 우즈베키스탄의 현대적 소매채널은 Korzinka, Makro와 같은 자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전통적 채널은 재래시장 형태인 바자르(Bazaar)가 주로 운영되고 있음
 - 최근 식품 소매채널에서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등과 같은 현대적 채널이 수도인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전통적 소매채널인 바자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 기업인 Korzinka, Makro, Samarqand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타깃은 중산층 소비자인 것으로 나타남
 - 현대적 식품소매채널은 2022년 9.5%까지 확대될 전망임
 - 우즈베키스탄의 현대적 식품 소매채널의 비중은 2015년 4.4%, 2016년 5%, 2017년 6.3%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주로 수도인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쾌적한 식품 쇼핑 환경, 다양한 수입품목 및 제품군 등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끌고 있음
 - 과거 우즈베키스탄의 식품 소매채널은 대형업체의 투자없이 주로 독자소매상 중심으로 확장했으며,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의 수가 낮은 편임
- 바자르는 전통 재래시장으로 우즈베키스탄 전국적으로 퍼져있으며 과일, 채소 등의 신선식품을 주로 취급
 - 바자르는 현지 소비자들의 주요 식품 구매채널이며 농산물 직판장 같음
 - 바자르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현대적 소매채널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비자들이 선호함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가. 오프라인 유통채널

■ 현대식 유통채널은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 슈퍼마켓, 하이퍼마켓으로 구분됨

- 최근 현대적인 대형 쇼핑몰의 등장으로 백화점은 다소 구식으로 여겨짐
 - TsUM 백화점은 가격대가 높은 편으로 현지 소비자들보다는 관광객의 방문 및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SAMARQAND DARVOZA는 현재 타슈켄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합 쇼핑몰로 대형 슈퍼마켓과 고급브랜드, 영화관 및 오락실, 각종 음식점 등이 입점한 멀티플렉스형 유통채널임

매장명	Central department store in Tashkent(TsUM)	SAMARQAND DARVOZA
사진		
설립연도	1910년	2014년
매장수	1개	1개
홈페이지	www.tsum.ru	sdmall.uz

* 출처 : sputnikimages.com, tripadvisor.co.kr

- 슈퍼마켓은 제품의 진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 및 편의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음
 - Korzinka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으며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함
 - Makro 브랜드 슈퍼마켓은 자체 베이커리와 나만의 샐러드 만들기 코너 등을 운영하여 타 슈퍼마켓들과 차별화를 꾀함
 - Yubileyniy는 다양한 종류의 식음료 제품을 판매하며 시음, 시식 행사 등의 홍보 전략을 활용함

매장명	Makro (DARVOZA SAVDO)	Korzinka (Anglesey Food)	Yubileyniy
사진			
설립연도	2010년	1996년	2014년
매장수	50개	18개	-
홈페이지	makromarket.uz	www.korzinka.uz	www.facebook.com/yubileyniy

* 출처 : eurasianinvestor.com, 2gis.uz, kati.net

- 하이퍼마켓은 보편화 초기단계에 있으며 쾌적하고 현대적인 쇼핑환경을 제공함
 - Mega Planet은 다양한 소매점과 영화관, 푸드 코트로 구성되었으며 평일 정오에 푸드 코트에서 점심을 먹는 직장인과 쇼핑하러 온 젊은 주부들로 붐빔
 - 2020년에 우즈베키스탄 내 Carrefour 1호점이 개장하였고, 2021년엔 3개로 확대될 예정

매장명	Carrefour (Carrefour SA)	Mega Planet
사진		
설립연도	2020년	2010년
매장수	1개	-
홈페이지	www.carrefouruzbekistan.com	www.mega-planet.uz

* 출처 : retaildetail.eu, youtube.com

■ 전통식 유통채널은 여전히 영향력이 큰 식품 소매채널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매일 전통식 유통채널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 단지나 버스 정류장 근처 등 접근성이 높으며, 전국 각지에 광범위하게 위치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낮은 편으로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재래시장이 여전히 선호되나, 최근 대형마트와 같은 현대식 유통채널로 소비자가 이동하는 추세
 - 특히 비교적 구매력을 보유한 수도(타슈켄트)에서는 현대식 유통시장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음



* 주 : 전통식 유통채널의 경우 매장별 점유율, 매출액에 대한 정보가 집계되지 않음

* 출처 : yandex.com, gettyimages.com

나. 온라인 유통채널

■ 2019년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 약 8,000만 달러(한화 약 970억 원)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 2018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식료품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전년 대비 47.5% 증가한 63억 숨(한화 약 8억 원) 규모로 나타남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식품 온라인 유통채널로는 Arba와 LeBazar가 있음
 - Arba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고 대중적인 온라인 유통 플랫폼으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모두 아우르는 식품 전반에 대한 제품을 판매함
 - LeBazar는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타슈켄트 지역을 위주로 식료품 및 비식료품을 판매하고 있음
 - Arba.uz는 제품 다양성, 강력한 프로모션 캠페인으로 온라인 판매를 주도함

-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는 저개발상태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성장을 견인함

채널명	Arba.uz	lebazar.uz
사진		
설립연도	2014년	2016년
홈페이지	Arba.uz	lebazar.u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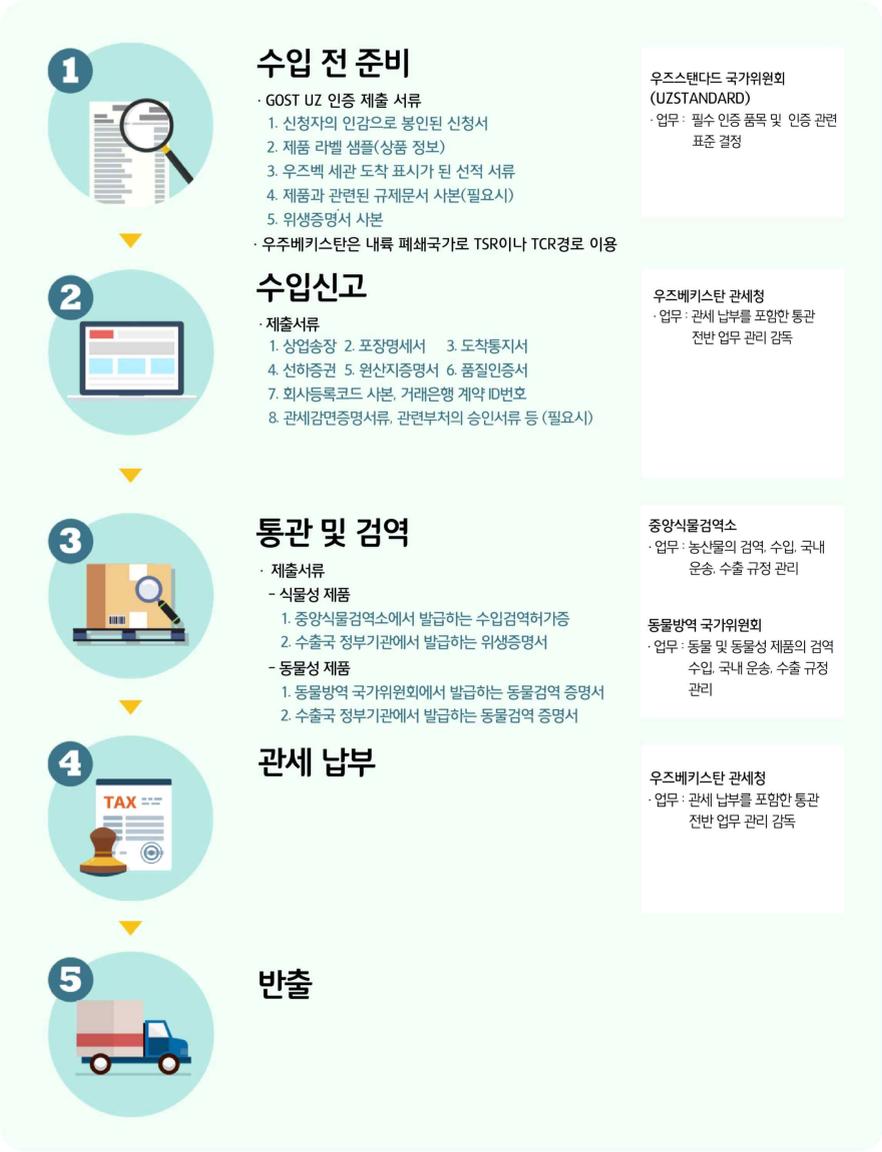
* 출처 : 해당업체 홈페이지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 수출 프로세스

우즈베키스탄



2 수입제도

가. 통관제도

- 우즈베키스탄의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사전통지 → ②수입신고 → ③검역 및 검사 → ④관세납입 및 반출 순서로 진행
- 운송업자는 관세 영역(Customs territory)으로 물품 및 교통수단 반입 시 세관 당국에 통지
 - 예외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수입 물품은 도착 전 30분 이내에 도착 통지(Notice of arrival)를 하여야 함
 - 세관 업무 시간 외에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세관 업무 개시일의 업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 통지 하여야 함
-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 필요
 - 통관은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제출되고 세관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working days)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기에서 언급된 '3일' 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의 수입 물품에 관한 업무 처리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관련 서류로는 수출국(재수출국 포함) 통관서류, 수입대금 결제서류, 관세납부 확인서, 세관 신고서, 운송 및 선적 서류(상업 송장 등), 원산지증명서(필요한 경우), 동, 식물 검역서(필요한 경우), 허가서(허가를 요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등이 필요함
-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에서 요구한 기준에 맞는지 물품검사를 실시
 -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원은 세관 내 지정된 구역에서 물품 검사를 실시하나, 세관 이외의 장소(수입물품이 플랜트 설비, 귀금속 등 경우)에서 수행되기도 함
 - 물품 검사는 주로 도착 물품과 송장상 기재 물품과의 대조 작업으로 이루어짐

■ 서류검사 및 물품검사(검역)가 완료되면 관세 납부 필요

- 관세 등의 통관비용은 수입자 또는 관세 대리인을 통해 납부해야 함
- 물품 및 교통수단 반입 시 다음의 통관 비용 납부 필요
 - 관세, 부가가치세(VAT) : 20%, 통관수수료 : 0.2%, 소비세(부과 대상 품목인 경우) : 5%~200% 등 부과
- 수입관련 내국세의 경우,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20%~40%를 부과함
- CIS 국가간 역내 수출입 시 10%의 우대 관세율이, 기타 지역의 수출입 거래에서는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됨

■ 관세 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를 통해 물품반출이 가능

- 수입물품이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 수입자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이 완료되면 물품 반출서를 발급받아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나. 라벨링 규정

■ 2019년 8월부터 식품시장 내의 불법, 저품질, 모조품 판매를 방지하고자 자국산 및 수입산 일부 식품에 의무적으로 라벨링 부착을 요구함

- 주류, 음료, 비타민, 식품첨가물 등이 라벨링 의무 부착 품목에 해당됨
 - 수입자가 세관에 라벨 제작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관원은 수입업자의 이름, 세금 식별번호, 신청일, 신청 라벨 수 등을 기록하여 관세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함
 - 관세위원회는 2일 내로 식별(identification) 표시를 붙여 세관으로 다시 보내며, 세관 검사관은 신청서에 따라 상품에 식별 라벨을 부착함
 - 상품 포장의 라벨은 판매 전까지 반드시 부착돼 있어야 하고, 라벨은 제3자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 없지만 세관에 반환할 수 있음
 - 전시품, 연구, 시험 등의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상품들은 라벨링 절차가 필요 없음
 - 라벨은 열전달 스탬프가 부착된 특수 바코드 프린터에 의해 제작됨
 - 상품 정보, 수량, 수입자, 세금식별번호 등을 포함하며, 반드시 현지어로 기재되어야 함

- 소비자 포장에 필요한 라벨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제조일
- 제조사의 보증 규정
-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법 및 조건 명시
- 서비스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 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
- 제조업체 주소, 소비자 보호 기관 정보
- 안전한 사용 및 저장 방법

-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반드시 우즈베크어로 된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된 물품인 경우에는 검사단계가 엄격하므로 해당 물품이 라벨링 부착 대상 품목인지 여부에 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
 - 제2류, 제4류 일부, 제7류 일부, 제8류 일부, 제1806호, 제19류 내지 제22류 등에 해당하는 식료품은 우즈베크어로 라벨링을 부착해야 하는 품목에 포함됨

주요 품목 식품 표기사항 예시

	필수 표기내용
	1. 제조일 : 2017년 06월 19일
	2. 사용방법 : 샌드위치, 샐러드 요리에 곁들여 드세요
	3. 유효기간 : 제조일 이후 0~10도는 9개월, 10~20도는 6개월
	4. 제조업체 주소 : maheev 주소 : 445037, 러시아, 사마라 지역, Togliatti, Avtozavodskiy 지구, Novy proezd, 3, 사무실. 95
	5. 소비자보호기관 : Rospotrebnadzor 전화 +7 (85557) 4-55-13 사이트 : rospotrebnadzor.ru
	6. 저장방법 : 개봉 후 냉장고에 보관

* 출처 : uz.openfoodfacts.org

3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및 현황

■ 우즈베키스탄의 TBT/SPS 통보문 사례 확인되지 않음

-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WTO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 국가로, WTO에 TBT 통보문을 제공하지 않아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어려움
 - 수입 시 필수 인증이 요구되는 품목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표준청(Uzstandard)에서 국가 표준 인증 업무를 주관함
 - 우즈베키스탄 표준청(Uzstandard) 홈페이지 : www.standart.uz

몽 골 . . .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107
1. 농업 현황	
2. 수출입 현황	
II. 농식품 시장 현황	117
1. 시장 개요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 환경 변화	
3. 농식품 관련 정책동향	
III. 농식품 유통 현황	124
1. 유통 현황 및 특징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30
1. 수출 프로세스	
2. 수입제도	
3.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및 현황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1 농업 현황

가. 농업규모

- 축산업에 집중된 농업 구조로, 2019년 전체 농업규모는 전년 대비 16.2% 증가한 36조 8,976억 4,000만 투그릭(한화 약 14조 7,591억 원)으로 집계
 - 농업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1%의 증가세이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0%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7%씩 감소함
 - 내륙국가로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특징이 있고 고지대가 많아 한랭한 기후를 지님
 - 겨울이 길어 농사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며 초원이 발달해 있어 역사적으로 목축업이 성행함

몽골 농업 부문 국내총생산액(GDP) 및 비중(2015~2019)

(단위 : 백만 투그릭,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GDP ¹⁾	전체	23,150,386	23,942,866	27,876,297	32,411,224	36,897,640	13.8	12.4
	농업 ²⁾	3,091,999	2,798,773	2,865,391	3,495,733	4,062,667	16.2	7.1
	비중	13.4	11.7	10.3	10.8	11.0	2.1	△4.7

* 주1 : 당해년가격 기준 GDP
 * 주2 : 농축임수산업 포함
 * 출처 : 몽골 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통계연보(Yearbook 2019)

- 몽골의 농촌인구는 103만 7,900명, 농업 고용인구는 29만 200명으로 집계
 - 농촌인구는 지난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전체 인구의 32.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업 고용인구는 연평균 3.0%씩 감소해 2019년 전체 산업 내 농업 종사자 비중은 전년 대비 0.6%p 낮아진 25.3%를 차지함

몽골 농촌인구(2015~2019)

(단위 : 천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농촌 인구	961.6	988.1	1,031.2	1,040.5	1,037.9	△0.2	1.9
전체 인구 대비 비율	32.0	32.2	32.8	32.6	32.2	△1.2	0.2

* 출처 : 몽골 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통계연보(Yearbook 2019)

몽골 농업 고용인구(2015~2019)

(단위 : 천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고용인구	1,151.2	1,147.8	1,238.3	1,253.0	1,146.2	△8.5	△0.1
농업 ¹⁾ 고용인구 (비중)	327.6 (28.5)	348.4 (30.4)	356.4 (28.8)	334.1 (26.7)	290.2 (25.3)	△13.1	△3.0

* 주1 : 농축임수산업 포함

* 출처 : 몽골 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통계연보(Yearbook 2019)

- 2019년 몽골의 농지면적⁶⁾은 1억 1,473만 6,700ha에 달하며 대부분이 축산업을 위한 목초지로 사용됨
 - 농산물 가운데 곡류 재배지 면적은 36만 9,445ha로 지난 5년간 소폭 감소세
 - 이 중 밀 재배지 면적이 34만 3,515ha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공예작물과 감자의 재배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각각 8만 6,179ha와 1만 4,941ha를 기록함
 - 채소류 농경지는 총 8,438ha로 당근, 순무 및 양배추 등이 활발하게 재배됨

몽골 농지 면적(2015~2019)

(단위 : 천 ha,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농지 면적	114,998.5	114,931.1	114,843.5	114,809.2	114,736.7	△0.1	△0.1
목초지	110,613.6	110,490.0	110,429.3	110,391.6	110,330.6	△0.1	△0.1
건초용 목초지	1,717.7	1,742.4	1,710.2	1,709.1	1,709.1	0.0	△0.1
농경지	1,028.2	1,067.7	1,086.8	1,100.8	1,117.2	1.5	2.1
휴경지	305.0	260.6	241.0	231.6	216.6	△6.5	△8.2
기타 ¹⁾	1,334.1	1,370.3	1,376.3	1,376.1	1,363.2	△0.9	0.5

* 주1 : 부대시설 면적 포함

* 출처 : 몽골 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통계연보(Yearbook 2019)

6) 몽골 식량농경공업부 홈페이지 게시. 1019기준

몽골 주요 농산물 재배 면적(2015~2019)

(단위 : ha,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파종 면적 전체	527,674.6	508,324.9	527,019.7	511,830.5	526,049.8	2.8	△0.1
곡물류	390,690.2	377,802.2	390,860.2	366,809.3	369,445.2	0.7	△1.4
밀	361,218.9	355,074.9	365,658.6	342,366.4	343,515.6	0.3	△1.2
귀리	12,781.6	7,448.7	6,786.3	11,169.5	14,537.0	30.1	3.3
보리	6,448.9	6,909.3	3,340.5	3,104.9	2,932.8	△5.5	△17.9
공예작물	84,456.6	66,182.2	81,007.1	71,946.9	86,179.7	19.8	0.5
감자	12,839.4	15,024.3	15,147.8	12,924.9	14,941.9	15.6	3.9
채소류	7,656.4	9,052.2	8,356.6	8,865.8	8,438.4	△4.8	2.5
당근	2,321.4	2,839.4	2,417.4	2,412.7	2,642.4	9.5	3.3
순무	2,142.1	2,900.7	2,099.4	2,548.8	2,263.0	△11.2	1.4
양배추	976.5	1,030.3	1,099.3	1,105.6	1,106.1	0.0	3.2
양파	901.6	938.9	1,147.8	1,279.1	954.4	△25.4	1.4
박류	470.6	510.6	663.8	618.1	647.0	4.7	8.3
오이	345.3	345.5	353.6	333.7	357.6	7.2	0.9
토마토	184.5	201.2	181.8	187.3	161.4	△13.8	△3.3
마늘	86.5	70.6	117.4	118.0	136.7	15.8	12.1
과일 및 베리류	2,716.0	3,043.0	2,702.0	3,887.6	2,973.7	△23.5	2.3

* 출처 : 몽골 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통계연보(Yearbook 2019)

- 2019년 몽골의 가축 사육 규모총 7,096만 9,300마리로 모든 항목에서 높은 증가세
 - 양은 3,226만 7,300두로 모든 가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으며, 연평균 6.6%씩 증가하고 있음
 - 염소 2,926만 1,700두, 소 475만 3,200두, 말 421만 4,800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5.5%~6.6%의 수준으로 개체 수가 증가함

몽골 가축 사육규모(2015~2019)

(단위 : 천 마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55,979.8	61,549.2	66,219.0	66,460.2	70,969.3	6.8	6.1
양	24,943.1	27,856.6	30,109.9	30,554.8	32,267.3	5.6	6.6
염소	23,592.9	25,574.9	27,346.7	27,124.7	29,261.7	7.9	5.5
소	3,780.4	4,080.9	4,388.5	4,380.9	4,753.2	8.5	5.9
말	3,295.3	3,635.5	3,939.8	3,940.1	4,214.8	7.0	6.3
낙타	368.0	401.3	434.1	459.7	472.4	2.8	6.4

* 출처 : 몽골 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통계연보(Yearbook 2019)

나. 주요 생산 품목 및 규모

■ 2019년 농업 총산출액 6조 158억 9,210만 투그릭(한화 2조 4,064억 원)으로 집계

- 축산물의 총산출액은 전체의 86.1%인 5조 1,826억 260만 투그릭(한화 약 2조 730억 원)을 기록했으며 연평균 8.8%씩 상승하고 있음
- 농산물의 총산출액은 8,332억 8,950만 투그릭(한화 3,250억 원)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4%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몽골 농업 총산출액(2015~2019)

(단위 : 백만 투그릭,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농업 총산출액	4,298,772.7	4,188,401.1	4,213,672.3	5,215,480.4	6,015,892.1	15.3	8.8
축산물	3,737,049.1	3,459,398.0	3,711,235.7	4,389,305.3	5,182,602.6	18.1	8.5
농산물	561,723.6	729,003.1	502,436.7	826,175.1	833,289.5	0.9	10.4

* 주 : 총산출(Gross Output)

* 출처 : 몽골 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통계연보(Yearbook 2019)

■ 2019년 육류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55만 4,200톤으로 집계됨

- 육류 가운데 양과 염소고기가 26만 4,800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6%의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남
 - 단일 세부품목으로는 소고기의 생산량이 11만 9,400톤으로 가장 많음
- 우유는 107만 4,200톤, 달걀은 1억 7,870만 개가 생산되었으며, 특히 달걀은 생산량이 연평균 15.4%씩 매우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몽골 축산물 부류별 생산량(2015~2019)

(단위 : 천 톤, 백만 개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육류	전체	448.0	400.0	426.2	515.2	554.2	7.6	5.5
	양·염소	220.9	193.1	207.5	236.3	264.8	12.1	4.6
	소	93.2	92.4	97.7	126.6	119.4	△5.7	6.4
	돼지	0.6	0.6	0.5	0.6	0.6	0.0	0.0
우유	874.4	891.5	919.5	902.4	1,074.2	19.0	5.3	
달걀 (백만 개)	100.6	119.0	96.7	151.9	178.7	17.6	15.4	

* 주1 : 도축당시 무게 기준

* 출처 : 몽골 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통계연보(Yearbook 2019)

■ 농산물 중에서는 곡물과 감자 및 채소류 등이 활발히 생산되고 있으며, 모든 품목의 생산량 증가세

- 2019년 곡물류는 총 43만 3,000톤 생산되었으며, 이 중 밀이 41만 4,000톤으로 주를 이룸
- 감자는 19만 2,200톤 생산되어 단일 세부품목 가운데 밀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며, 채소류의 생산량은 9만 9,500톤으로 당근, 오이, 토마토, 양파 등이 생산됨
- 이 외에 공예작물과 과일류도 미미하게 생산되고 있음

몽골 주요 농산물 생산량(2015~2019)

(단위 : 천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곡물류 전체	216.3	483.5	238.1	453.8	433.3	△4.5	19.0
밀	203.9	467.1	231.4	436.1	411.4	△5.7	19.2
귀리	3.3	7.9	3.5	10.0	13.3	33.0	41.7
보리	2.4	6.5	1.7	2.4	2.5	4.2	1.0
감자	163.8	165.3	121.8	168.9	192.2	13.8	4.1
채소류 전체	72.3	94.4	82.1	100.7	99.5	△1.2	8.3
당근	18.5	31.0	21.7	26.3	28.9	9.9	11.8
양배추	15.4	16.7	15.2	18.8	21.9	16.5	9.2
순무	17.6	21.2	16.6	24.1	21.5	△10.8	5.1
양파	6.7	10.0	12.1	14.1	9.5	△32.6	9.1
박류	6.5	7.2	8.8	9.6	9.1	△5.2	8.8
오이	3.8	3.7	3.9	3.8	4.7	23.7	5.5
토마토	1.9	2.2	2.0	1.9	1.9	0.0	0.0
마늘	0.7	0.7	0.4	0.5	0.8	60.0	3.4
온실채소	2.8	3.4	3.1	3.1	4.5	45.2	12.6
공예작물	23.1	21.5	13.9	23.9	34.0	42.3	10.1
과일 및 베리류	1.4	1.6	1.5	1.7	1.8	5.9	6.5

* 출처 : 몽골 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통계연보(Yearbook 2019)

2 수출입 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19년 농식품 수출액 6,255만 8,000달러(한화 약 708억 940만 원)로 전년 대비 32.3% 감소

- 중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이 91.4%를 차지하며 의존도가 가장 높음
 - 對중국 수출액은 5,715만 4,000달러(한화 약 646억 9,261만 원)로 전년 대비 34.5% 감소하였음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뒤이어 캄보디아로의 수출액은 236만 5,000달러(한화 약 26억 7,694만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170.6% 증가
 -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2.8% 증가한 82만 달러(한화 약 9억 2,815만 원)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수출액의 1.3% 비중 차지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16,319	12,665	25,045	92,460	62,558	100.0	△32.3	39.9
1 중국	12,585	8,775	16,591	87,287	57,154	91.4	△34.5	46.0
2 캄보디아	0	0	1,005	874	2,365	3.8	170.6	-
3 아랍에미리트	1,589	675	2,485	226	820	1.3	262.8	△15.2
4 일본	92	214	108	449	669	1.1	49.0	64.2
5 러시아	587	399	956	1,383	562	0.9	△59.4	△1.1
6 한국	273	368	583	673	533	0.9	△20.8	18.2
7 대만	0	18	31	75	158	0.3	110.7	-
8 미국	18	22	58	47	64	0.1	36.2	37.3
9 홍콩	0	49	16	15	40	0.1	166.7	-
10 프랑스	0	0	0	0	34	0.1	-	-

* 출처 : ITC Trade Map

- 주요 수출 품목 중 육류 조제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에도 수출액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육류 조제품’ 수출액은 6,255만 8,000달러(한화 약 708억 940만 원)로 전체 수출액의 40.6%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45.2% 감소
 - ‘소로 만든 기타 육류 조제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73만 7,000달러(한화 약 279억 9,981만 원)로 집계
 - ‘밀기울 등 밀에서 나온 잔재물’ 수출액은 351만 1,000달러(한화 약 39억 7,410만 원)로 전년 대비 24.6% 감소
 - 이 외에도 기타 조제 식료품(2.6%), 맥주(0.9%), 기타 동물성 유지류(0.8%) 등이 수출 상위 10위 품목에 해당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16,319	12,665	25,045	92,460	62,558	100.0	△32.3	39.9
1 기타 육류 조제품	0	111	1,797	46,286	25,379	40.6	△45.2	-
2 기타 육류 조제품 중 소로 만든 것	529	1,309	4,257	28,678	24,737	39.5	△13.7	161.5
3 밀에서 나온 잔재물 (밀기울 등)	3,852	2,476	3,083	4,657	3,511	5.6	△24.6	△2.3
4 기타 조제 식료품	5,327	305	1,856	2,219	1,653	2.6	△25.5	△25.4
5 맥주	75	1,183	473	383	532	0.9	38.9	63.2
6 기타 동물성 유지류 (화학적 변성 가공한 것 제외)	0	55	178	254	495	0.8	94.9	-
7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251	301	336	296	399	0.6	34.8	12.3
8 보드카	92	142	65	136	242	0.4	77.9	27.4
9 기타 균질화한 육류 조제품	7	128	2,446	4,073	194	0.3	△95.2	129.4
10 스위트 비스킷	359	282	89	89	185	0.3	107.9	△15.3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

■ 2019년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과 유사한 5억 4,162만 3,000달러(한화 약 6,131억 7,139만 원)로 집계

- 러시아산 농식품 수입액은 1억 4,384만 9,000달러(한화 약 1,628억 5,145만 원)로 전체 26.6% 비중을 차지
 - 중국산 수입액은 8,722만 2,000달러(한화 약 987억 4,402만 원)로 전년 대비 1.3% 증가
 - 뒤이어 한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30.2% 증가한 4,688만 1,000달러(한화 약 530억 7,398만 원)로 집계되며 수입 상위3위에 위치
 -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산(5.1%), 독일산(4.7%) 순으로 집계됨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411,118	407,280	463,034	536,006	541,623	100.0	1.0	7.1
1 러시아	115,661	120,979	135,487	148,005	143,849	26.6	△2.8	5.6
2 중국	72,923	60,271	69,944	86,139	87,222	16.1	1.3	4.6
3 한국	28,658	31,100	33,183	36,008	46,881	8.7	30.2	13.1
4 카자흐스탄	27,848	28,090	31,467	30,668	27,361	5.1	△10.8	△0.4
5 독일	18,411	19,443	21,276	25,576	25,240	4.7	△1.3	8.2
6 폴란드	16,401	17,706	21,148	25,448	23,076	4.3	△9.3	8.9
7 베트남	7,668	10,494	9,807	13,449	17,659	3.3	31.3	23.2
8 미국	7,923	8,144	12,046	16,954	17,318	3.2	2.1	21.6
9 태국	16,301	11,061	11,002	13,360	15,136	2.8	13.3	△1.8
10 우크라이나	22,307	21,463	18,588	19,806	14,881	2.7	△24.9	△9.6

* 출처 : ITC Trade Map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당류나 정미 등을 제외하고는 가공식품이 상위에 위치함
 - '기타 조제 식료품' 수입액은 5,863만 7,000달러(한화 약 663억 7,122만 원)로 집계
 -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3,198만 2,000달러(한화 약 362억 42만 원), '기타 사탕수수당 등 자당' 수입액은 전년 대비 26.8% 감소한 2,301만 8,000달러(한화 약 260억 4,256만 원)로 집계
 - 이 밖에도 정미(4.1%), 기타 설탕과자(4.1%), 그 밖의 파스타(3.7%) 순으로 수입액 비중을 보임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411,118	407,280	463,034	536,006	541,623	100.0	1.0	7.1
1 기타 조제 식료품	31,187	32,868	45,606	60,035	58,637	10.8	△2.3	17.1
2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	26,526	23,881	27,387	31,567	31,982	5.9	1.3	4.8
3 기타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19,387	26,340	26,529	31,450	23,018	4.2	△26.8	4.4
4 정미	10,801	13,426	17,859	22,252	22,196	4.1	△0.3	19.7
5 기타 설탕과자(코코아 함유한 것 제외)	19,411	20,065	22,395	21,160	22,140	4.1	4.6	3.3
6 그 밖의 파스타(속을 채운 것 제외)	13,323	11,856	14,389	18,537	20,137	3.7	8.6	10.9
7 기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0	0	13,290	14,631	17,346	3.2	18.6	-
8 스위트 비스킷	14,072	13,340	13,832	15,089	16,386	3.0	8.6	3.9
9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밀크와 크림	7,848	6,416	11,518	11,123	13,302	2.5	19.6	14.1
10 기타 베이커리 제품	6,039	7,949	8,083	9,886	11,792	2.2	19.3	18.2

* 주1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

나. 한국의 對몽골 농식품 수출현황

■ 2019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몽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5,283만 9,800 달러(한화 약 597억 8,294만 원)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라면(8.4%),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기타 음료(8.2%), 소스류(4.6%), 과일주스 음료(2.7%), 맥주(2.6%) 등 가공식품이 상위에 위치함
 - 라면 수출액은 445만 1,200달러(한화 약 50억 3,608만 원)로 전년 대비 25.1% 증가

-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기타 음료는 2017년부터 수출하기 시작하며 2019년 수출액은 433만 1,600달러(한화 약 49억 293만 원)로 집계
- 뒤이어 소스류 수출액은 244만 8,400달러(한화 약 27억 7,134만 원)로 전년 대비 1.2% 감소
- 과실주스 음료와 맥주 수출액은 각각 140만 2,100달러(한화 약 15억 8,703만 원), 135만 200달러(한화 약 15억 2,829만 원)로 집계

한국의 對몽골 농식품 수출현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32,861.9	34,344.8	39,587.9	47,103.5	52,839.8	12.2	12.6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한국의 對몽골 수출상위 5개 품목(2015~2019)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32,861.9	34,344.8	39,587.9	47,103.5	52,839.8	100.0	12.2	12.6
1 라면	2,249.6	2,189.6	2,512.9	3,559.4	4,451.2	8.4	25.1	18.6
2 기타 설탕 또는 감미료를 첨가한 음료	0.0	0.0	3,285.2	4,020.7	4,331.6	8.2	7.7	14.8
3 소스류	1,230.6	1,432.9	1,900.1	2,479.1	2,448.4	4.6	△1.2	18.8
4 과실주스 음료	-	-	793.8	1,249.3	1,402.1	2.7	12.2	32.9
5 맥주	1,682.1	1,412.2	804.8	1,383.5	1,350.2	2.6	△2.4	△5.3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섬유판, 종자 등은 제외함

* 주2 : 기타 설탕 또는 감미료를 첨가한 음료, 과실주스 음료의 경우 '17~'19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산출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II

농식품 시장 현황

1 시장 개요

가. 시장규모 및 특성

- 2019년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식품시장 규모는 매년 20%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임
 - 정부의 투자로 신선 농산품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자급률이 낮아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 생산량을 기준으로 축산품과 곡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과일 생산량이 1%로 가장 낮은 수준임
 - 2012년부터 몽골의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6년 4억 6,140만 달러(한화 약 5,594억 원)로 확대되었으며, 그 중 곡류 가공식품 시장 규모 32.5%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 유제품과 가공육 시장규모 각각 연평균 14.9%, 10.4% 증가
- 2019년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4.5% 성장한 2조 422억 8,140만 투그릭(한화 약 7,964억 8,975만 원)으로 집계
 - 음료 및 주류 시장규모 1조 171억 4,520만 투그릭(한화 약 46억 8,580만 원)으로 전체 가공식품 시장의 49.8% 차지
 - 육가공품 및 과채류 가공품 시장규모 2,999억 2,830만 투그릭(한화 약 119억 9,7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4.4%) 감소
 - 뒤이어 기타 가공식품(12.7%), 유가공품(11.8%), 곡물가공품(11.0%) 순으로 집계

가공식품 시장규모(2015~2019)

(단위 : 백만 투그릭,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전체	1,042,945.8	1,089,619.2	1,405,428.7	1,783,269.8	2,042,281.4	100.0
음료 및 주류	527,042.3	605,008.6	740,844.5	828,233.8	1,017,145.2	49.8
육가공품 및 과채류 가공품	153,131.2	100,456.7	160,387.2	313,819.5	299,928.3	14.7
기타 가공식품	116,197.6	126,851.0	164,522.8	204,745.5	258,467.5	12.7
유가공품	52,501.6	70,151.4	113,943.9	205,174.6	241,182.9	11.8
곡물가공품	194,073.2	187,151.5	225,730.3	231,296.2	225,557.0	11.0

* 출처 : 몽골 통계정보시스템(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 1인당 연간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 11.0kg으로 주요 농식품 품목 중 가장 높은 소비 수준
 - 뒤이어 밀 가공품 및 베이커리 제품이 1인당 소비량 10.1kg로 집계, 육류 및 육가공품 8.5kg, 달걀 등 난류 5.2개, 감자 2.6kg 규모로 소비가 이루어짐

1인당 연간 농식품 소비량(2015~2019)

(단위 : kg)

분류	2015	2016	2017	2018	2019
우유 및 유제품	13.8	11.1	10.9	10.0	11.0
밀 가공품 및 베이커리 제품	10.5	10.2	10.2	10.1	10.1
육류 및 육가공품	8.5	8.7	8.6	8.9	8.5
달걀 등 난류(개)	4.1	3.9	4.4	4.5	5.2
감자	2.8	2.8	2.7	2.6	2.6
채소류	2	1.9	1.9	1.9	2.1
쌀	1.8	1.8	1.8	1.8	1.9
설탕 및 당류	0.8	0.7	0.8	1.1	1.1
식물성 유지류	0.5	0.5	0.5	0.4	0.5
버터	0.3	0.3	0.3	0.2	0.2

* 출처 : 몽골 통계정보시스템(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나. 소비인구 및 특성

- 2020년 인구 수 316만 8,026명, 중위연령 29.8세로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 5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이 87.18%로 평균 인구 연령이 낮은 편에 속함
 - 뒤이어 25세~54세의 인구비중이 45.29%, 14세 이하는 26.96%, 15세~24세 14.93% 비중을 각각 차지함
 -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비교적 균등한 편으로, 남성 154만 6,098명(48.8%), 여성 162만 1,928명(51.2%)으로 집계
- 2019년 가구소득 1,681달러(한화 약 190만 원)로, 2018년 1,592달러(한화 약 180만 원) 보다 증가함(데이터 확인 필요)
 - 2019년 3분기 기준 월평균 임금은 116만 6,400투그릭(한화 약 46만 원) 수준
 - 몽골의 남성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연 5,058만 9,681투그릭(한화 약 2,023만 원), 여성 근로자들은 2,628만 9,099투그릭(한화 약 1,051만 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
 - 몽골의 노동력 참여율은 2019년 3분기 60.10%에서 2019년 4분기 60.70%로 상승함
- 식료품 소비환경이 개선되며 소비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편의점과 미니마트 등 현대적 유통채널이 성장하고 있음
 - 2020년 GS리테일은 2021년 말까지 몽골 전국에 50개 매장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Circle K와 CU는 2018년 시장에 진출해 도시 전역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대표 유통업체인 이마트 또한 2017년 9월에 슈퍼마켓 체인을 출시함
 - 탐앤탐스 커피, 커피빈, 뚜레쥬르, KFC, 버거킹 등 트렌디한 식음료 매장이 도심에 새롭게 자리 잡으며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음
- 식료품 지출비는 2020년 8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4.50% 증가함
 - 목축업 발달의 영향으로 유제품과 육류의 소비 비중이 높음
 - 육류 중에서도 가금육을 제외한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낙타고기 등이 육류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함

- 현재까지도 육류 위주의 전통적 식문화를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몽골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소와 과일 등 품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음료 및 주류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식음료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식음료 시장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생수로 최근 5개년 평균 19%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그 뒤를 탄산음료(14.7%), 맥주(4.8%), 주스류(1.8%)가 이음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 환경 변화

가. 주요 트렌드

-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조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기본적 식재료인 식용유, 쌀, 차류, 설탕, 소금 등 생필품 소비가 약 20% 이상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몽골의 식량 소비량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30%가량 증가함
 - 제일 처음으로 주식이 되는 밀가루와 베이커리 제품 소비량이 증가했고, 뒤이어 육류, 식물성 기름, 채소 및 쌀 등 품목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
 - 99% 수입에 의존하는 소스류 역시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유지되는 추세
 - 물류상 제약 및 통관 지연 등의 이유로 전체 소스류 수입 규모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과 관련한 식품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기존에 부각되지 않았던 유기농 식품, 건강식품과 같은 품목이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음
 - 하이퍼마켓, 대형마트 등에는 별도의 건강식품 코너가 마련되었으며, 가격 중심의 소비패턴에서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로 전환되고 있음
- 개인 보건 및 위생에 대한 타인 접촉을 피해 온라인 구매가 증가
 - 몽골의 전문 온라인 몰은 식품 판매가 저조하여 거의 비중이 낮은 상태로 최근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식품 전문 온라인 몰의 활성화 움직임이 나타남

나. 이슈품목

- 장기간 외출하지 않아도 집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조미료, 육가공품, 유제품 등의 소비가 증가함
 - 해당 품목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꾸준히 소비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및 소비자의 비축심리 발동 등으로 관련 제품의 수요가 더욱 증가함

코로나19로 소비가 증가한 기본 식재료 품목

				
Sondog 소금	Oleina 채소오일	CAXAP 설탕	노마 딕 버거 고기	Ulzii 우유

* 출처 : www.grocery.shopyy.mn

■ ‘건강’ 관련한 식품 소비가 주목을 받자 채식 위주의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Ulemj Organic社, Tsetseg社 등 채식브랜드의 인기가 상승

- 몽골에서는 ‘건강한 식품 소비’가 트렌드로 작용함에 따라 인체에 해로운 첨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자연의 성분과 맛을 최대한 살린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신체 면역력과 장 건강의 연관성이 조명되면서 간편하게 마시는 발효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체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위치한 장 건강을 관리하려는 소비자가 많아지자 유기농 식품 기업 Ulemj Organic社에서 유기농 요구르트를 출시함
 - 몽골은 꿀은 고지대에서 재배되어 산화 방지제가 풍부하기 때문에 몽골 소비자의 수요가 큰 편이며, Tsetseg에서 유기농 꿀을 출시하여 판매함

유기농 제품 품목

	
Ulemj Organic 유기농 요구르트	Tsetseg 유기농 꿀

* 출처 : zaraa.mn

3 농식품 관련 정책동향

- 몽골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8월 1일부터 수입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함
 - 5월 1일 몽골 정부는 국회의 제35호(농산물 관세 인상) 결정으로 일부 과일 및 야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0% 인상해 최대 30%까지로 조정하였음
 - 이는 몽골이 자국에서 과일 및 야채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농산물을 수확하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 해당 조치로 인해 관세율이 인상되는 품목은 감자, 양배추, 당근, 순무, 양파 등으로 관세율이 30%이며 추가로 최근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하는 토마토, 오이, 마늘 등 품목의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세도 인상되었음
 - 2019년 기준 몽골은 신선 식품의 수입 규모가 1500만 달러(한화 약 원)로 집계되었는데, 이번 수입관세 인상으로 인해 감자는 53%, 토마토 32%, 양파 35%, 마늘 30%, 당근 88%, 오이 27%, 양배추 67%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몽골 정부의 자국 농업육성정책으로 앞으로 다른 수입관세 인상품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신선 식품 관세 인상 현황

(단위 : %)

HS Code	품목명	기존 관세율	변경 관세율
0701.90	감자	20	30
0702	토마토	20	30
0703.10.00	양파	15	30
0703.20.00	마늘	5	30
0704.90.10	양배추	20	30
0706.10.10	당근	20	30
0706.10.20	순무	20	30
0707	오이류	20	30
0710.10	감자	20	30

* 출처 : 몽골 관세청



농식품 유통 현황

1 유통 현황 및 특징

- 수도 울란바토르 기준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은 5,651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됨
 - 소규모 매장이 대부분으로 일반 식료품점이 3,234개로 전체 57.2% 차지
 - 뒤이어 노점 1,664개(29.4%), 미니마켓 516개(9.1%), 슈퍼마켓 123개(2.2%)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편의점 95개로(1.7%), 대형마트 19개(0.3%)가 영업 중임

울란바토르 내 식품 유통매장 현황(2019)

(단위 : 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미니마켓	식료품점	노점	편의점	계
19	123	516	3,234	1,664	95	5,651

* 출처 : 몽골 농림축산경공업부

-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으나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이 보급되며 온라인 식품 유통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인터넷 보급률은 19.94%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18년 기준 몽골의 인터넷 보급률은 47.16%로 집계됨

인터넷 보급률(2014~2018)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19.94	22.27	22.27	23.71	47.14

* 출처 : Statista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가. 오프라인 유통채널

- 현대식 유통채널은 백화점과 편의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현대식 유통채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백화점은 도시의 주요 명소로 인식되는데, State Department Store는 국영 백화점 이자 90년 역사를 가진 관광 랜드마크이며 최고 수준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임
 - 백화점 내 슈퍼마켓을 통해 식료품 유통이 이루어지며 울란바토르를 포함한 도시에만 점포가 집중되어 있음

매장명	State Department Store (Nomin Holding)	Ulaanbaatar Department Store
사진		
설립연도	1921년	2010년
매장수	1개	1개
홈페이지	holding.nomin.mn	www.ubds.mn

* 출처 : alamy.ocm

- 편의점은 매우 일반적인 소매형태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음**
 - 몽골 내 탄탄한 기반을 구축한 편의점 브랜드인 Circle K는 향후 매장을 200개로 확대할 계획을 보유함
 - 우리나라 편의점 브랜드인 CU도 울란바토르에 진출해 입지를 굳히고 있음

매장명	Circle K (Alimentation Couche-Tard)	CU (BGF Retail Co.)
사진		
설립연도	2017년	2018년
매장수	25개	50개
홈페이지	www.circlek.mn	cumongol.mn

* 출처 : 해당업체 홈페이지, insideretail.asia

- 슈퍼마켓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산시키며 체인의 수가 급증함
 - Orgil 슈퍼마켓은 저렴한 도매가격 정책으로 경쟁력을 지니며 수도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됨
 - Nomin 슈퍼마켓은 저렴한 가격과 환불 보장, 무료 배송 및 보너스 카드 제공 등 소비자를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
 - HomePlaza는 신선식품 중 60%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주요 소비자층인 프리미엄 슈퍼마켓임

매장명	orgil supermarket (Orgil Center)	Nomin supermarket (Nomin Tav Trade LLC)	HomePlaza (HomePlaza)
사진			
설립연도	1996년	1992년	2008년
매장수	11개	13개	2개
홈페이지	www.orgil.mn	holding.nomin.mn	www.homeplaza.mn

* 출처 : 해당업체 홈페이지, wikipedia, mapio.net

Ⅲ. 농식품 유통 현황

- 하이퍼마켓은 큰 할인 등의 행사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함
 - 하이퍼마켓은 현대적인 인프라,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 광범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음
 - 고품질 상품과 충분한 주차시설 등의 요인 역시 소비자를 유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및 포인트 적립 등으로 고객 충성도를 높임

매장명	Nomin hypermarket (Nomin Tav Trade LLC)	Minii delguur	Emart (Sky Hypermarket LLC)
사진			
설립연도	1992년	2019년	2016년
매장수	6개	23개	-
홈페이지	holding.nomin.mn	-	e-mart.mn

* 출처 : 해당업체 홈페이지

■ 전통식 유통채널 현금거래만 가능하며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물건을 구매 가능

- 판매하는 식품과 과일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나 채소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재배하여 가격과 신선도가 높은 것이 특징
 - 육류의 경우 별도의 냉장시설 없이 상온에서 그대로 판매됨

매장명	나랑툴 재래시장 (Narantuul Market)	미르꾸리 시장 (MEPKYPH)
사진		

* 출처 : pinterest.com.au, travelnbike.com

나. 온라인 유통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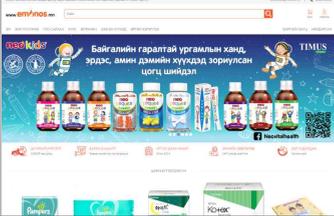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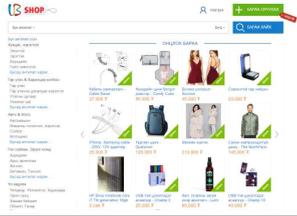
■ 온라인 유통채널은 2012년 이후 도시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해 왔으며, 몽골 인구 70%가 젊은 세대이므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임

- 몽골의 온라인 유통채널은 전체 유통시장의 약 5%에 불과하나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자 수의 증가로 온라인 유통시장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몽골 상업 은행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 결제 및 Candy, GG, Most Money, Amar, Moby Express 및 ZPay 와 같은 스마트 폰 뱅킹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결제 옵션을 제공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의 90%가량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발생하며, 나머지 10%가량이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국경도시 다르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 부족, 제품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의 부족, 제품을 찾기 위한 몽골어 검색 엔진의 부족, 지불 및 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몽골의 주요 식품 온라인 유통채널에는 Rio, Mmarket, Shopyy 등이 있음

- Rio는 생활소비재 전반을 판매하는 몽골의 온라인 유통채널로써, 식품 부문에서는 커피, 차, 주류 및 음료 위주의 가공식품을 판매하나, 타 온라인 유통채널에 비해 제품의 종류와 수가 적은 편임
- Mmarket 역시 생활소비재 전반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며, 식품 부문에서는 육 가공품, 절임채소류, 치즈, 음료 및 주류 등의 가공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와 가짓수가 비교적 한정적임
- Shopyy는 2017년에 설립된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소비재 전반에 대해 취급하고 있으며, 식품 부문에서는 음료, 소스, 향신료 등 가공식품 위주로 판매함

Ⅲ. 농식품 유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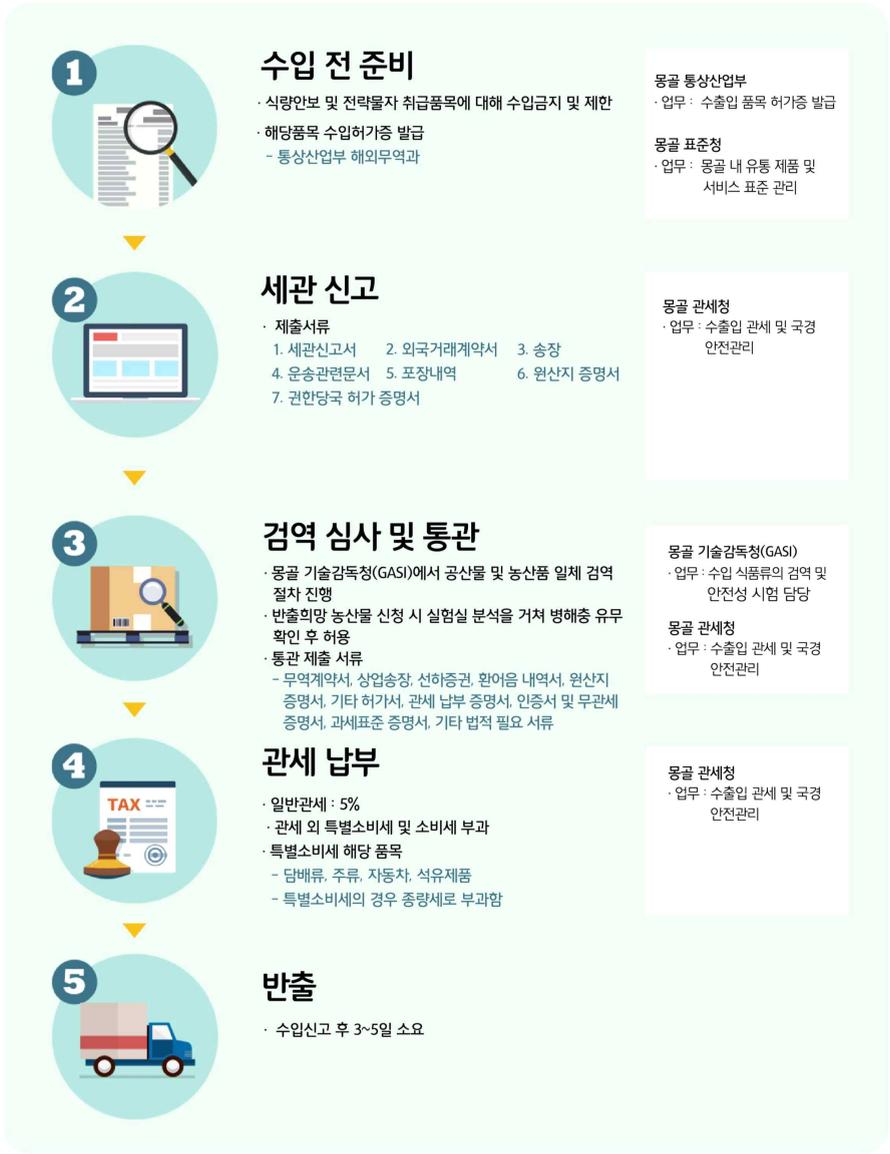
채널명	M MARKET (MEC Partners LLC)	emonos (Monos Group)	UBShop (Slide Ltd)
사진			
설립연도	2014년	2014년	2015년
홈페이지	mmarket.mn	emonos.mn	ubshop.mn

* 출처 : 해당업체 홈페이지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 수출 프로세스



2 수입제도

가. 통관제도

■ 몽골 관세청에서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

- 몽골의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수입신고 → ②서류검사 → ③제품 검사 및 검역 → ④관세납입 및 반출 순서로 진행됨

■ 식품 수입 규정에 따라 몽골에 등록된 법인만이 식품 수출입 업무 가능, 수입 식품은 자체 식품검수, 품질관리체계(HACCP, GMP, GHP, ISO)를 도입한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 수입식품은 통관 시 유통기간의 3분의 2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유기농·농축산물·유전자 변형 식품의 경우 국가기관에 신고해야 함
 - 동식물성 식품과 원재료를 수입자가 처음으로 수입할 경우 이름, 종류, 지역, 국가, 원산지명을 상차 30일 전에 검수기관에 사전 통보해야함
- 식품 수입 시 하기와 같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됨
 - 원산지증명서 :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않는 물품에는 일반 관세율이 적용 및 부과됨
 - 라이선스 : 몽골 정부가 규정한 자국산 전략품목 중 분유, 우유, 육가공식품(소·말·낙타·염소·양), 밀가루, 생수 수출입 시 라이선스 취득이 선행되어야 함

- 원산지증명서(필수)
- 건강위생증명서
- 검사결과서

- 수입 후 제품 보관할 창고 증명서
- 법률에 지정된 라이선스

■ 몽골은 생산기반이 미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나 주류의 경우 수입 허가품목에 해당되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 수입 가능

■ 몽골은 식량안보 및 전략물자 취급에 까다롭고,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및 제한하여 규제하기 때문에 사전에 품목확인 필요

- 기존에는 우유 및 분유, 육류, 밀가루 등 식품에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규제하였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몽골 정부는 주요 식품의 가격, 조달 및 공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식품 수입 허용을 결정함
 - 밀, 쌀, 설탕 및 식물성 기름과 같은 곡류 등 전략 식품을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서 면제하기로 조정함

■ 수입통관 전 화물에 대한 내용을 몽골 관세청에 신고

- 몽골의 수입통관 시 몽골 관세청에서 승인한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CDF)와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제반서류는 수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국제 가축병원 증명서, 포장정보, 관세납부증명서임
- 사전수입신고는 국경을 통과하기 전 혹은 세관에서 정밀 검사하기 전에 각각 할 수 있으며, 사전 수입신고 시 관세청에 구비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물품 수령 후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함

■ 수입신고한 서류 내용을 토대로 통관 서류 검사를 실시

- 필요에 따라 외국거래 계약서, 송장, 운송관련 문서, 포장내역, 원산지 증명서, 권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증명서 등을 몽골어로 작성하거나 번역본으로 제출함
- 관련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면 관세청에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상품의 관세를 평가한 후 수입자에게 수입세, 부가가치세, 기타 조세 부과함

■ 몽골 관세청 명령으로 인해 제품에 대한 검사 및 검역을 실시함

- 몽골은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 판매, 사용 이전의 검역을 의무로 함
-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국경순찰대, 식물검역연구소 등과 같은 기관에서 발급한 표준품질 인증서(Standard and Quality Certification)를 제출하는 것에 한해 허가증 발부함

- 식품을 수입할 경우 ISO인증서, 제품 리스트, 가격 리스트, 결제조건(선결제/후결제) 정보가 필요하며, 수입식품의 통관 검역 기관은 서류가 완벽할 경우 보통 1주일 이내로 통관이 가능함

■ 서류 및 물품검사 이후 관세율에 따른 통관 세금을 납부

- 몽골은 대외무역에서 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낮은 편임
- 수입품의 경우 특별세 부과대상 외에 기타 물품에 대한 세율은 대략 5% 정도이나 유제품, 꿀, 감자, 배추, 순무 등 부 야채와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계절에 따라 5~15%의 수입관세 부과함
- 수입품에 부가가치세(VAT)는 세금 부과 금액의 10%로 함.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에 관세와 특별세 등을 부과하여 정함
 - 특별세 대상 품목 : 술, 와인, 담배, 맥주 등을 포함

■ 관세납부를 납부하면 화물인도지시서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

- 몽골 수출의 경우 통관 허가 및 서류 제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보다 높음

나. 검역제도

■ 제품의 위험도가 낮을 경우 서류 심사로 통관 진행하나 위험도가 높을 경우에는 실험 검사 진행

- 제품의 위험도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기준에 따라 국경 및 세관 진입 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상이함
 - 위험도가 낮은 제품은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하며 필요 시 검수를 수행하나, 위험도가 중간 이상인 제품은 서류, 검수, 시험검사를 3개월마다 수행함
 - 검수는 검역의 초기 검수로 제품이 파손 및 변질, 오염, 품질, 안전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실험실 검사를 실시함

구분	위험도 기준	분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및 동물에게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할 가능성 • 몽골에 등록되지 않은 질병이나 해충, 독성 식물 등이 확산되어 몽골 농축산업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 • 자연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 	높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 자연환경 및 농작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 자연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음 	중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및 동물,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없음 	낮음

■ **동식물, 동식물 원재료, 제품은 가축병원 검역, 식물검역, 검사를 실시하며, 검역 및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포유류, 애완 및 야생동물, 파충류, 수생동물, 새, 벌, 그것들의 새끼나 배아, 살아있는 알
- 고기, 우유, 부속 고기, 지방, 계란, 가죽, 뼈, 모피, 울, 캐시매어, 털, 내장, 뿔, 발굽, 새의 깃털, 오리털, 발톱, 가축의 생식기, 쓸개, 샘 등 동물성 원재료, 제품
- 자연 작물이나 재배된 뿌리채소, 열매채소 등, 나무, 그것의 씨앗, 묘목, 부위
- 곡물, 감자, 채소, 잎, 사료, 원두, 경공업 및 식품 공장에서 사용되는 식물성 기타 원재료, 건조된 식물, 수집, 목재, 그것의 일부, 각종 과일, 밀가루, 설탕, 양념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것
- 혈 및 혈청, 혈장
- 사냥한 동물
- 각종 병을 유발하는 벌레나 곤충, 미생물 배양, 유전자 변형 방식으로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생물
- 물 사체, 분뇨, 병을 유발하는 물질
- 흙, 청동, 돌
- 차량, 컨테이너, 포장용 스티로폼 및 완충재, 깔개, 동물의 털로 가공한 펠트, 가축의 사육 물품, 건축 부자재(줄, 끈 등)

- 동물, 식물, 원자재, 제품의 원산지는 동물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식물의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국가 및 지역이어야 하고, 해당 제품의 위험요소가 없어야 함

- 검역 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국가전문검역청에 제출해야 함

- 동물, 식물, 제품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및 그와 유사한 서류
- 동물, 식물, 제품을 운송할 운송수단 종류, 차종, 도로 경로
- 해당 국경 지역, 기간
- 원자재, 제품 수량, 가공상태(반가공, 원재료, 냉동, 신선 등), 포장, 상표, 품질, 안전성에 대한 정보

■ **對몽골로 수출되는 신선 및 건조 농산물 중 금지품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하기와 같은 품목 수출 가능**

수출 가능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 단감, 감귤,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튜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신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튜립 • 묘목류 : 딸기
-------------------------	---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몽골

다. 라벨링 규정

■ **수입식품의 라벨은 몽골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식품 라벨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며 모든 정보는 러시아어로 표기되어야 함

수입된 포장식품 라벨링 기재사항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식품 라벨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성분리스트 • 순중량, 총중량, 그 외 수치적 지표 • 제조사, 수입업체, 유통업체,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 • 원산지 • 제조일자 또는 포장일자 • 유통기한 및 저장조건 • 사용설명 • 관련 기준 및 문서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량 • 영양성분 • 임산부 및 어린이 사용에 대한 표시 • 원산지 표시 또는 변형된 유기체 명칭 또는 특별한 국제적 표시

주요 품목 식품 표기사항 예시

	필수 표기내용
	1. 제품명 : CoCo XOOO 라면
	2. 식품성분 : 100g 당 열량 350kcal,
	3. 순중량 : 140g+10g
	4. 제조사 : Double Hill Company, Lconxn XXX
	NOHIO ync bamsypx aypar 10-p
	хорлоо Vre 95133439 A00n349
	5. 원산지 : 몽골
	6. 제조일자 : 2018년 08월 01일
	7. 유통기한 : 건조한 상태에서 24개월
	8. 사용설명 : 소스를 넣고 600초 동안 뜨거운 물에
	담가 드세요.
	9. 관련기준 표시 : 100% 비유전자변형식품

* 출처 : ardshop.mn

3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및 현황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이 WTO에 통보한 TBT 건수는 1건으로, 국민건강, 안전보호 및 동식물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 전반에 대해 표준을 제시함
 - SPS 통보문과 한국을 특정하여 발행된 통보문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식품부문 TBT 통보 품목 및 목적(2015~2019)

품목	건수	통보목적(중복집계)	건수
식품전반	1	국민건강/안전보호	1
계	1	동식물보호	1
		계	2

* 출처 : WTO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신북방]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발 행 일 : 2020년 12월

자료문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분석부(kati@at.or.kr)

- 본 자료는 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 KATI(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및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신북방

